

중국·일본에서 인천으로 쇼핑 온다!

송도국제도시가 복합쇼핑 천국으로 화려하게 변신한다. 롯데자산개발이 올해부터 송도국제도시 내 국제업무단지에 1조원을 투자해 '롯데몰 송도(가칭)'를 조성한다. 롯데자산개발은 지난 2010년 11월 롯데몰을 건립하기 위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를 발표한 바 있다.

롯데몰은 백화점, 대형마트, 멀티플렉스 영화관, 아이스링크, 오피스텔, 호텔 등을 망라한 복합 쇼핑공간. 오는 2015년 개장할 예정이며, 44만2천㎡ 규모로 최근 문을 연 롯데몰 김포공항점의 1.5배에 이른다. 이곳은 특히 쇼핑에만 중점을 두지 않고 여가를 편안히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을 표방해 명칭도 쇼핑몰이 아닌 롯데몰로 정했다.

한편 롯데몰 길 건너에 1만9천587㎡ 부지에는 이랜드그룹이 복합유통시설을 조성한다. 이곳에는 NC백화점, 호텔, 쇼핑물 등이 들어서며 2015년경 완공할 계획이다. 이들 대형 복합쇼핑몰이 완공되면 송도국제도시가 명실공히 아시아 최대의 쇼핑 중심지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은 물론 중국, 일본에서 인천으로 쇼핑을 날이 멀지 않았다.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굿모닝 인천
2012.2.2
월

인천광역시

2012 2





26



24



30



06



10

굿모닝 인천



Incheon Monthly magazine vol.218 / 2012. 2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2년 2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허종식(대변인)
편집장 유동현(미디어팀장) twitter.com/ihappyou
취재 편집위원 이용남 twitter.com/youna1488
 편집위원 정경숙 twitter.com/bluelou7
 편집위원 김윤경 twitter.com/ice3333
사진 김보섭 · 김성환 · 홍승훈(자유사진가)
 심영보 · 하장원(시대변인실)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디자인 & 인쇄 성광디자인(주) T. 032.881.9441

굿모닝인천은 goodmorning.incheon.go.kr과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문의 T.032.440.8306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06

Enjoy incheon / 신포살롱

명동, 흥대 못지 않은 문화지대로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국 3대 상권으로 이름을 날려, 거리엔 차고 넘쳐나는 것이 사람이었던 곳. 옷을 사고, 친구를 만나고, 맛있는 분식집이 즐비하게 밀려 먹거리, 놀거리가 풍성했던 곳. 신포동의 화려한 역사다.

12

Vision incheon / 주요 성과와 비전

밝다, 인천의 미래

지금, 인천은 그 어느 때보다 희망차다. 구도심 재생사업, 제3연륙교 건설, 영종지구와 청라국제도시 개발 등 그간 주춤했던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제 시작이다. 285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인천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고 희망찬 것이다.

26

당기는 맛 / 이색 길거리 음식

맛에 반해 '한입, 두입'

거리를 걷다보면 뜨끈한 오뎅, 고소하고 삼삼한 순대, 먹음직스러운 빨간 떡볶이에 발걸음을 멈추게 된다. 도로 위에 서서 찬바람 피하고, 언 손을 녹이며 먹는 길거리 음식은 색다른 즐거움이다.

Contents

04 **Communication** 소통과 화합

06 **Enjoy Incheon** 신포살롱

10 **Vision Incheon** 밝다, 인천의 미래

14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거대한 카오스 속 묘한 조화

18 **시정토크 앱App** 인천 학력향상

22 **그 시간이 흐른 이 공간** 성신카메라

26 **팽기는 맛** 이색 길거리 음식

30 **아름다운 사람 I** 승리아구단 감독 이도형

32 **아름다운 사람 II** 여성 용접사 정선영

34 **Culture News** 뮤지컬 극장가! 놀자 하

38 **만화** 일주일에 하루만 쉬면, 혜택 '뽕뽕'

39 **한방길림** 컴퓨터세대 거북이목 비상!

40 **별난 물건, 별난 역사** 금고

42 **Civic News** 죽산(竹山) 조봉암 선생 동상 건립 추진 하

46 **Council News** 인천·부산시의회 합동 워크숍 하

48 **글로벌 인천** 필드 위에 꽃 핀 우정

49 **도전** '인천의 아들' 인천 위해 뛰다

50 **Infobox** 미추홀도서관 문화행사 하

55 **리크루트** 인천 고용정보

56 **소통 24시** 미추홀콜센터 시민상담

57 **인천사는 이야기** 칭찬합니다 하

58 **모닝커피 한잔** 김용란 연극배우

59 **인천풍경 플러스** 저 얼음 떠다 팔빙수 해 먹을까



Cover Story
 정월대보름 쥐불놀이 행사
 인천 원인재에서
 편화 · 김경배 作



〈굿모닝인천〉의 못 다한 이야기 동영상으로 보세요.

(굿모닝인천)이 2월호부터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QR코드를 찍으세요.
 ※ 태블릿 PC를 통한 서비스는 추후 제공 할 예정입니다.



인천과 통(通)하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손을 마주잡고 눈빛을 나누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천시 대표 미디어와 SNS에서 우리 만나요.

인천시 미디어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goodmorning.incheon.go.kr)

인터넷방송 **민트TV** (tv.incheon.go.kr)

인터넷신문 **I - View** (enews.incheon.go.kr)

스마트폰 앱 **인천시 미디어** (smart.incheon.go.kr)

인천시 SNS

소셜웹 (social.incheon.go.kr)

블로그 (blog.naver.com/flyic)

트위터 (twitter.com/smartincheon)

미투데이 (me2day.net/incheon4u)

페이스북 (facebook.com/visionincheon)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인천에 대한 생각과 인천의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032-440-8305)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go.kr)로도 받습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접수됩니다.

서울 출퇴근길 내 친구 <굿모닝인천>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 인천시민으로, 출퇴근길에 늘 <굿모닝인천>과 함께 합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정작 내가 살고 있는 인천 소식에 어두울 때가 많은데, <굿모닝인천>을 통해 인천의 대소사는 물론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올해도 내가 사랑하는 인천에 대해 많이 알 수 있도록 좋은 정보 전해주세요. <굿모닝인천> 파이팅!

_ **문시내** 남구 숙골로43번길

인천의 내일, 더 밝게 빛나길

'2012 인천시정키워드'와 '새해 달라지는 인천생활' 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인천시민으로서 새해 인천의 변화와 향후 비전을 제시해 주어 매우 유익했습니다. 인천이 한층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시정을 운영하는 분들이 더욱 수고해 주었으면 합니다. 시민 한 사람으로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_ **한순희** 남동구 구월남로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새해 처음 <굿모닝인천>을 받아 읽어보니, 시장님께서 한해 할일들을 꼼꼼히 짚어 주었네요. 분야별로 잘 시행해서 인천에 사는 시민이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삶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굿모닝인천>을 통해 고졸취업에 대해 읽었는데, 청년실업만큼 어르신 실업 문제도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각별히 신경 써 주었으면 합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수명연장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퇴직한 어르신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랍니다.

_ **한상대** 부평구 부영로4번길

시민의 말에 늘 귀 기울여 주세요

인천시가 시민과 화합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소통은 시민의 말을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뜻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의 말을 소중히 귀 기울여 들어야 하겠지요. 올해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운영하길 바랍니다.

_ **김영신** 서구 원당대로

우리의 꿈은 꼭 실현되리라

<굿모닝인천> 편집진 여러분~ 항상 새롭고 유익한 소식을 전해 주어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인천의 밝은 미래를 꿈꾸는 저의 마음을 '소통과 화합'의 장을 통해 알립니다. 아이들을 위한 보육과 교육,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잘 이뤄지는 행복도시 인천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국립대학으로 거듭날 인천대 학생들을 든든하게 뒷받침하여 인천 나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일꾼으로 키우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꿈은 꼭 실현되리라 믿습니다.

_ **김종진** 남구 한나루로

인천이야기가 한눈에~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어느 날 아빠가 퇴근길에 들고 오신 <굿모닝인천>. 이후 지금까지 팬이 되어 다달이 <굿모닝인천>을 읽고 있답니다. 시민으로서 시정이 돌아가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 관광 등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까지 다양하게 담겨 있어 더욱 좋고요. 친구들에게도 널리 알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 많이 전해주세요~ 파이팅!

_ **김은빈** 부평구 가재울로

시민을 위한 시정운영을 기대

'새해 달라지는 인천생활' 기사는 분야별로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해 주어 유익했습니다. 애독자로서 의견을 내자면, 각 분야별 행정업무 담당자들이 모여 '어떤 계획 아래 어떤 내용으로 행정을 펼칠지' 의견을 나누며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코너가 있었으면 합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인천시를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힘써주어서 고맙습니다.

_ **김미영** 서구 고산로

우리동네 공원이 새 단장을 했어요

우리동네 건지공원이 예쁘게 새 단장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맘껏 놀 수 있도록 놀이시설도 안전하고 깨끗하게 새로 세워졌어요. 시민으로서 의견을 더 낸다면, 나이 드신 분들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공원 한편에 지압로를 설치해 주면 어떨까요? 아이들과 어르신 모두 즐겁게 어울리는 쉼터가 될 거예요.

_ **박점숙** 서구 건지로334번길

Bulloger

시민께서 송영길 시장 트위터(@bulloger)를 통해 문의한 것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입니다.



@Bulloger 황소 시장님, 소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럴 때 좋은 대책이 없을까요?

시는 소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2012년 하반기 예정으로 강화섬 한우고기 전문직판장 조기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섬 한우고기 인터넷 직거래장터를 개설해 판로를 개척하고, 인천 우수축산물로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ulloger 2012년, 인천시에서는 젊은이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나요?

청년인턴 프로그램, 장학생 선발, 직업훈련사업, 청소년 국제 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 행정정보, 주요시책에 게시된 '2012년 달라지는 제도'를 참고하면 더 많은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Bulloger 존경하는 시장님! 다자녀를 키우면서 힘들어 하는 가정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현재와 같은 실정에서 자녀 네다섯을 양육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시는 만0~2세, 만4세~5세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다자녀 가구에는 셋째아 이상에게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또한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정에 36개월 미만 아동에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편적 보육복지'를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Bulloger 인천시 하수도 요금만 30% 인상하는 게 사실 인가요?

이미 부산시 26.87%, 대전시 21.8%, 울산시 14%의 요금이 인상됐고, 서울수도 금년 3월부터 35%, 2013년 20%, 2014년 15%로 단계적 인상이 확정되어 시행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수도 처리비용의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을 적용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하수도 경영수지에 많은 적자를 가져와 부득이하게 이번에 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찾아주세요



이름 배상근(당시 만 38세, 남)
발생일자 2006년 7월 20일(목)
발생장소 남구 주안3동
신체특징 정신질환
제보처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
www.missingchild.or.kr

명동, 홍대 못지 않은 문화지대로

청년들이 주도하여 서울의 명동과 홍대보다 더 나은 신포동을 만들면 어떨까?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국 3대 상권으로 이름을 날려, 거리엔 차고 넘쳐나는 것이 사람이었던 곳. 옷을 사고, 친구를 만나고, 맛있는 분식집이 즐비하게 몰려 먹거리, 놀거리가 풍성했던 곳. 신포동의 화려한 역사다.
저녁 7시만 되도 거리는 한산하고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다. 신포동의 옛 영화를 되찾고 문화와 음악이 흐르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20대 인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글. 이용남_본지편집위원 사진. 홍승훈_자유사진가



인천의 구도심인 신포동, 송월동 등에서 나고 자란 20대 청년들이 신포동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문화와 음악이 흐르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마을기업 ‘영썬크’를 세웠다. 마을기업 영썬크가 운영하는 문화공간 신포살롱은 신포동에 남아있는 7,80년대 문화적 향수를 살리고, 문화와 음악, 주변의 상권을 연결해 다시 사람이 오고 문화가 흐르는 동네로 만드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 명동, 홍대 못지않은 신포동으로

인천의 젊은이들이 놀거리를 찾아 서울로 가고, 문화적 즐길거리 대신 술과 노래방만 찾는 데 안타까움을 느꼈던

신포살롱 멤버들은 인천에도 서울의 명동이나 홍대 못지않은 문화공간을 만들자는 데 의기투합했다.
신포동 일대는 일제시대부터 인천의 중심상권이였다. 인근에 중국의 문화를 보여주는 차이나타운은 물론 일제시대 세워진 근대식 건물과 현대식 건물이 공존해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인천의 명동’으로 불리던 이곳 상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1985년 인천시청이 구월동으로 이전하고, 1999년 인현동 화재사건이 나면서였다.
내고장, 내지역 살리기에 나선 청년들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신포동 일대를 홍보하는 일은 물론 공연 문화 나눔터를 만들어 공연기획을 제공한다. 또 젊은 작가, 예술가들의 길거리 공연과 전시회를 열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인천의 인디



밴드들은 생활은 인천에서 하는 데 공연장소가 없어 서울의 홍대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감수하며 공연활동을 해왔다. 그래서 이들은 신포살롱과 ‘우리동네에서 공연하자’며 결합했다.
길거리공연은 지난해 7월 신포동 만남의 쉼터에서 대학교 밴드 동아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처음 열어 큰 호응을 이끌었다.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Muse & Music’, ‘Classic & Acoustic’, ‘Crazy Rock’의 3가지 테마로 개최되어 인하대 ‘꼬망스’, 단국대 ‘가객’을 비롯한 10여 개 공연팀 참가해 열띤 무대를 선보였고 큰 갈채를 받았다. 이제까지 신포동 만남의 쉼터에서 6번의 거리공연이 이뤄져 시민과 상인이 한데 어우러지는 시간을 가졌다.
신포살롱의 유마담으로 불리는 유명상(28) 대표는 “어렸

을 때 새 옷을 사려면 꼭 신포동에 나왔어요. 그때는 서로 어깨를 부딪치며 걸었을 정도로 사람이 넘쳐났는데 언제부턴가 동네가 확 죽은 거예요. 친구들도 구도심은 후지다며 다른 신도시나 서울로 떠났어요.”
유 대표는 자신이 나고 자란 동네가 다른 곳에 비해 뒤쳐진 곳이라는 사람들의 말이 아쉬웠다.

누구나 와서 무료로 전시하는 공간

‘신포살롱’은 누구나 와서 전시 할 수 있는 젊은 작가, 예술가들의 문화공간이다. 이미 많은 젊은 작가들이 이 공간에 자신의 작품을 선보였고, 시민과 만나 호흡하는 시

QR코드를 찍으면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간을 가졌다. 실폐살롱에서는 전시만 7번 이뤄졌다. 지난 1월 13일 영썩크는 인천대 미대 4학년 학생 10여 명과 일제 식민시대 부산물로 지어진 인천역에서 부터 차이나타운의 옛 중국인들이 살았던 중국식 가옥, 청관, 청일조계지, 제물포구락부, 자유공원, 개항장박물관 일대를 도는 답사 행사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실폐동과 차이나타운 등 인천을 배경으로 삼은 작품 전시회를 3월경 실폐살롱에서 갖는다. 전시에 앞서 실폐살롱의 유명상 대표가 학생들에게 차이나타운의 역사, 문화적 배경, 각 유적지를 설명하며 학생들이 작품전시에 앞서 지역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작품의 구상을 도왔다. 실폐살롱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온라인 쿠폐몰(소셜커머스)을 만들어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실폐살롱은 상업행위를 하지 않는 대신 소셜커머스를 통해 수익을 올린다. 살롱 블로그에 들어가면 실폐동 일대 상권인 음식점, 카페, 미용업소를 등록, 홍보해 주는 대가로 소셜커머스를 통해 판매한 쿠폐 수익의 일정부분을 갖는다. 실폐동에 있는 상점을 홍보하고 수익을 얻는 이 구조는 ‘실폐동 살리기’라는 살롱의 설립 취지와도 상통한다. 시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상점을 골라가는 재미를 느끼도록 쿠폐지도를 만들어 20개 정도의 상점 할인율을 적어 판매하고 있고 수익금은 다시 지역을 살리는 데 쓰고 있다. 실폐살롱은 올해도 젊은이들이 지역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공연, 전시의 장을 더 많이 마련할 계획이다. 실폐살롱 T.010-9851-0229



tip - 마을기업

마을이 마을을 먹여 살린다

마을기업은 주민모임, 부녀회, 봉사회 등의 단체가 지역의 향토, 문화, 자연자원을 활용해 공동체사업을 벌이는 형태의 사업이다. 현재 인천의 마을기업은 28개(신규 27개, 연장 1개)가 선정되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시는 지역에 산재해 있는 각종 자원을 활용 주민주도 사업화를 추진하고, 정보화마을과 마을기업을 연계, 정보화마을의 이미 구축된 홈페이지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판로를 개척한다. 시는 마을기업에 대해 전문적인 종합컨설팅을 지원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돕고 있다. 2011년 자전거를 이용한 도심형 녹색성장사업인, 은빛나르샤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했고, 14개 기업이 법인으로 조직을 바꿔 좀더 체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급으로 고용한 인원은 77명이다.

밝다, 인천의 미래

지금, 인천은 그 어느 때보다 희망차다. 우리시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국비지원, 인천대의 국립대 법인 전환, 인천가정법원 설립 등 오래도록 풀리지 않던 난제들을 속속 해결하면서 기분 좋게 한해를 시작했다. 시는 이 여세를 몰아 구도심 재생 사업, 제3연륙교 건설, 영종지구와 청라국제도시 개발 등 그간 주춤했던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제 시작이다. 285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인천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고 희망찬 것이다.

글. 정경숙_본지편집위원

성과1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국비지원

우리시의 최대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국비지원이 확정됐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사업에 국비 150억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을 토대로 대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주경기장 건설비 4천900억원 가운데 30%인 1천470억원을 국비로 지원하게 됐다. 먼저 건설사업비 150억원을 시에 지원하고 단계별로 1천47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주경기장을 비롯한 8개의 경기장을 착공하고 청년서포터즈 5만명을 육성하는 등 착실히 대회를 준비해왔다. 이번 국비지원 확정으로 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대회를 준비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대회로 치르겠다’는 우리의 목표에 성큼 다가선 것이다.

성과2 인천대 국립대 법인 전환

시립 인천대가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 새롭게 도약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데 이어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는 인천대가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한 지 7년 만으로 서울대, 카이스트, 울산 과기대에 이어 네 번째다. 대학은 올 한해 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학칙과 정관을 정하고 학교 재산을 법인 재산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어 내년 초 국립대 법인으로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일정 기간 국립대에 연 700억원 가량을 지원할 방침이다. 인천은 그동안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국립종합대학이 없다. 하지만 이번에 인천대의 국립대학 법인 전환을 이루면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성과3 인천가정법원 설립

가사와 청소년 사건을 다루는 가정법원이 인천에 세워진다. 인천에 가정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은 안타깝게도 가사재판 전수가 연 1만500여 건에 이르지만, 그동안 가정법원이 없어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설립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16년 남구 옛 인천지방법원 터에 인천가정법원이 들어서게 됐다. 가정법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에만 있다. 인천은 이번에 가정법원을 유치하면서 가정사법 문제를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처하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향후 이 혼란을 낮추고 청소년 범죄 등 각종 가정사법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성과4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국책사업 전환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신축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전환, 추진된다. 중구 신흥동 아암물류 2단지에 건립하는 국제여객터미널은 그동안 민자유치가 무산돼 사업중단 위기에 몰렸지만, 이번에 국책사업으로 전환, 국비 1천400억원 지원이 확정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인천항만공사는 이 여세를 몰아 올 초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갔다. 공사는 기상, 해상지형, 항만현황, 공사여건, 지반 등을 현장조사하고, 15만t급 크루즈 1개 선석, 카페리 7개 선석, 1천650m 규모의 호안 및 가호안, 함선시설, 준설매립 및 지반개량 등에 대한 설계를 진행한다. 그리고 실시설계가 나오는 6월 크루즈 호안공사에 착수하고, 이어 임시항로 준설과 안벽 공사 등을 추진해 오는 12월 터미널 건립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국제여객터미널 조감도



① 루원시티 조감도
② 제3연륙교 조감도
③ 청라지구 시티타워 조감도

비전1 루원시티 도시개발

루원시티가 올해 말까지 깨끗이 정리돼 유령도시라는 오명을 씻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4개 공구에 대한 철거공사를 발주하고 내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철거에 들어가 연말 안에 모두 마칠 계획이다. 루원시티는 전체 7개 공구 가운데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지나가는 가정오거리 주변 등 1~3공구는 현재 50% 정도를 철거했지만, 4~7공구는 아직 철거하지 못했다. 루원시티 내 1만5천여 세대를 이주시키는 일도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 1월 현재 92.3%가 이주, 약 70여 세대만이 남아 있다.

한편 시는 루원시티 도시개발의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앵커시설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송영길 시장은 최근 교육청과 논의를 거쳐 시교육청 청사를 루원시티로 옮기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어 공공 앵커시설뿐 아니라 주요 민간 앵커시설도 병행 유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비전2 제3연륙교 착공

우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제3연륙교를 상반기 내에 착공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제3연륙교는 길이 4.88km, 폭 6차선으로 영종지구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인천~영종도간 세 번째 다리다.

시는 제3연륙교를 올 상반기 내에 착공하고,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 손실 보전금 부담문제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계속 협의해 간다는 '선착공 후협' 방침을 세웠다. 현재 영종지구와 청라국제도시의 아파트를 분양해 제3연륙교 건설사업비 5천억원을 이미 확보했고 실시설계도 완료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가 사업승인만 내주면 상반기에 제3연륙교를 착공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제3연륙교 개통 시 기존 교량의 손실보전금을 우리가 전액 부담한다는 확약 없이는 사업을 승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제3연륙교 통행료 수입으로 기존 교량의 손실보전금을 충당하는 것을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보고, 국토부와 관련 전담팀(TF)을 구성해 합의점을 찾아갈 방침이다.

비전3 청라 시티타워 · 호수공원 건설

청라국제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청라시티타워와 중앙호수공원이 올해 드디어 착공한다. 이는 청라국제도시의 미래에 다가설 투자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시티타워는 국내 최고 높이인 450m로 청라국제도시 한복판에 세워진다. 타워부에는 관람시설과 레스토랑이, 지하부에는 웨딩파크, 아쿠아파크, 어드벤처파크 등이 들어선다. 또한 시티타워와 이어지는 중앙호수공원은 국내 최대 규모인 72만6천㎡로, 호수 면적은 21만6천㎡, 동서남북으로 뻗는 수로는 6만7천㎡에 이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라시티타워의 설계가 끝나는 대로 올 하반기에 착공해 오는 2014년 문을 열고, 중앙공원은 내달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13년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처럼 시티타워를 중심으로 호수공원과 주운시설 등 특화시설을 완공하고, 2013년 청라역과 검암IC, 청라~강서간 간선급행버스, 경인고속도로 연결로 등 교통인프라를 개통하면 청라국제도시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서부산업단지 내 전기자동차부품 단지와 인천하이테크파크를 본격적으로 조성하면 수도권 서부의 핵심성장거점으로 떠오르리라 기대된다.



거대한 카오스 속 묘한 조화

‘적도에 걸려 있는 에머랄드 목걸이’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는 다른 도시에 비해 전통과 현대, 부와 빈곤,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들이 공존하는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세련되고 날렵한 최신형 고급외제 승용차와 삼륜 오토바이를 개조해 만든 코믹한 모습의 바자이가 함께 달리는 거리 풍경이 자카르타의 ‘쌍얼’. 자카르타의 거대한 카오스 속에 묘하게 조화되는 일상이다.

글 · 사진 김성환_포토저널리스트



◀ 코타_올드시티
이스띠끌랄 사원 내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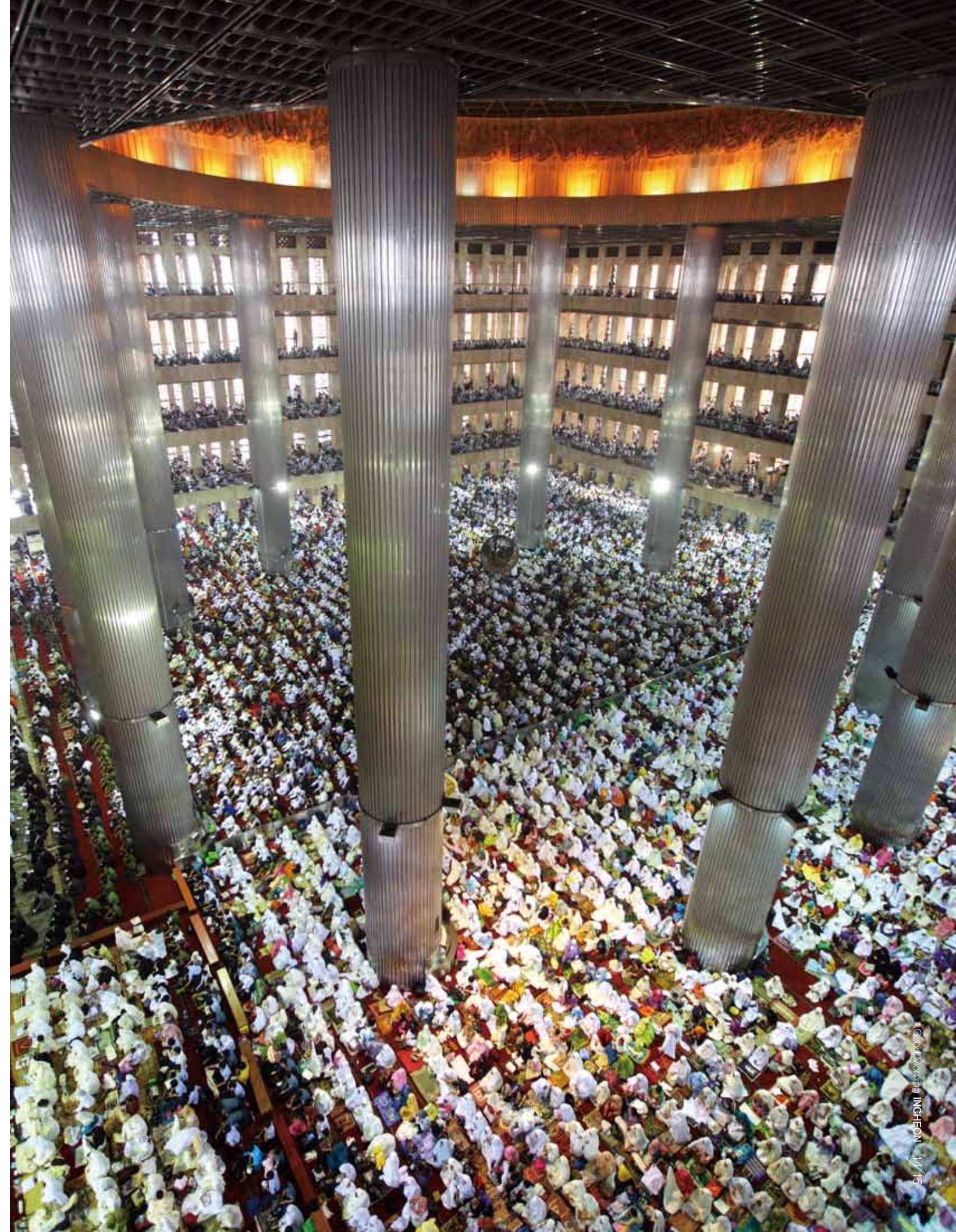
› 두 가지 얼굴을 가진 자카르타

동서는 모스크바에서 런던까지, 남북은 부산에서 신의주를 왕복하는 거리 사이에 약 1만3천개의 섬이 떠있는 나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는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모여 만들어 낸 독특한 문화, 향료를 찾아 먼 뱃길을 달려 온 상인과 열강 각축장의 흔적 그리고 새로운 경제대국으로 떠오르는 인도네시아의 자화상이다.

인도네시아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한눈에 묻어나는 자카르타는 정치, 경제, 상업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로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활기찬 도시다. 순다 끌라빠라는 작은 항구도시에서 시작된 자카르타는 므르데카 광장을 중심으로 약 25km에 걸쳐 길게 뻗어 있다.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한 서부 자바에는 힌두와 불교 왕조가 한때 전성기를 이루었으며 이후에는 이슬람 왕조가 나타나 지역문화를 흡수하고 포용했기에 역사적 흔적들과 종교가 뒤섞였다. 이후 네덜란드 등 서구 문명이 들어와 전통과 현대 서구적 삶의 양식이 혼합된 상반되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진 자카르타를 탄생시켰다.

인도네시아 인구는 총 2억4천만명으로 중국·인도·미국에 이어 네 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가히 종족 전시장이라고 할 만큼 많은 종족이 서로 다른 문화를 형성하며 살고 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많은 1만7천508개에 이르는 섬으로 영토가 이뤄져 있다.





- ① 따만미니 민속마을
- ② 따만미니의 인공호수
- ③ 따만미니 전통공연
- ④ 코타_코타역
- ⑤ 코타_올드시티
- ⑥ 코타_오래된 목교
- ⑦ 높이 137m의 모나스

이렇게 다양한 인도네시아인의 생활상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아름다운 인도네시아'라는 뜻을 가진 따만 미니 인도네시아 인다(Taman Mini Indonesia Indah)다. 현지에서는 흔히 '따만 미니'라고 불리는 이 공원은 그러나 이름처럼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총 면적 45만평이 넘는 이 공원에 오면 300여 종족과 250여 가지의 언어가 공존하는 복잡다단한 인도네시아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공원의 중심에는 인도네시아 지도 모양으로 섬들을 만들어 놓은 커다란 인공 호수가 있다. 그 호수 주변에 발리·술라웨시·파푸아 등 인도네시아 각 지역별 건축물이 하나씩 자리 잡고 있다. 인도네시아 27개 지역의 대표적인 건축물 안에는 주거, 의상, 풍속 등과 관련한 전시물을 전시해놓았다.

» 이슬람 민주주의의 실험실

자카르타 중심가에는 도시 어디서나 한눈에 들어오는 높이 137m의 모나스(Monas)가 우뚝 솟아있다.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 지시로 1961년 착공된 것으로 인도네시아 독립을 기념하는 건축물이다. 맑은 날 엘리베이터를 타고 모나스 전망대에 오르면 자카르타 전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군데군데 솟은 고층빌딩과 허름한 외곽 주거지역이 대조적인 도시의 모습에서 급격한 경제발전의 열매와 빈부 격차라는 어두운 단편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 모나스 주변에는 자카르타 시민의 휴식처인 독립광장이 자리

리한다. 워싱턴 광장을 본떠 만든 이 광장은 네덜란드 식민 통치기에는 매년 여왕의 생일 축하행사가 열리기도 했던 곳이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꼬따(Kota)라는 지역이 있다. 이곳은 300년 넘게 지속된 네덜란드 식민통치 시대의 중심지였다. 16세기 말 인도네시아를 점령한 네덜란드가 꼬따에 향료 무역을 독점하는 동인도회사를 세우면서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 역사의 전면에 부상했다. 꼬따에는 동인도회사의 본부로 쓰였던 자카르타 역사박물관, 자카르타에 끌려온 흑인노예들을 위해 1695년에 지어진 시온교회, 부산의 영도다리 같은 조그만 목교와 범선 등 네덜란드풍 유적지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 현대적인 도심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민주주의의 실험실이다.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이자 석유 등 천연자원이 경제의 기반이 되는 국가가 왕정이 아닌 민주공화제를 실현하고 있는 것은 정치학에서도 의미가 크다.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상징은 독립광장 북동쪽에 위치한 이스티글랄 사원(Masjid Istiqlal)이다. 이슬람 교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듯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이슬람 사원이다. 테라스까지 활용하면 한번에 10만명의 신자를 수용할 수 있다.



2020년 세계 10대 경제대국 진입 전망

영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인도네시아가 2020년 세계 10대 경제대국, 2030년에는 세계 6대 경제대국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7천80억 달러의 경제규모는 2030년 9조 달러로 늘어날 것을 토대로 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경제 규모가 독일과 멕시코, 프랑스, 영국을 앞지르고 중국과 미국, 인도, 브라질, 일본에 이어 세계 6위가 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요인으로는 도시인구 증가와 중산층 확대, 풍부한 천연자원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목 등 천연자원이 지천에 널렸을 뿐만 아니라 바이오 디젤로 쓰이는 팜오일과 같은 대체 에너지까지 무궁무진하다. 인도네시아 중산층 규모는 2020년에 전체 인구의 63%인 1억7천100만명, 2030에는 78%인 2억4천400만명으로 늘어나고, 주식, 구리, 금, 농산물 등의 가격도 계속 상승해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전망했다.



강남에서 찾아오는 교육도시로!

흔히 인천의 학력이 전국 최하위라고 하는 데, 우리로서는 사실 억울하다. 우리시의 대학진학률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수능성적만으로 학력 전체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다소 아파가 있기 때문. 하지만 외부에서 바라볼 때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이 타 시·도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사실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시와 시교육청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인천의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력향상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에서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도시로 만든다'는 게 우리의 비전.

학력향상 선도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강대수, 49)과 그곳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이복순, 46), 학교에 다니는 학생(김성훈, 19) 그리고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장학사(이병욱, 49)가 모여 '학력향상 정책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냈으며,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글. 정경숙_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성환_포토저널리스트



이병욱_장학사

인천시교육청 교육과정기획과 학력증진팀의 장학사 이병욱입니다. 시와 시교육청은 '인천의 학력 양극화를 해소하고 모든 학교가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학력향상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를 통해 변화된 점,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 등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강대수_교사

인천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와 인천고에서 진로진학 상담을 하고 있는 교사 강대수입니다. 인천고는 인천의 전통 있는 명문고이지만, 타 시·도의 특목고로 입학하는 학생이 늘면서 학력이 떨어지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학력향상 선도학교로 선정되면서 멘토제와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생을 위한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직 일년이 지났기에 성과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상당히 도움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교육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봅니다.



이복순_학부형

인천고 학부모회의를 대표하는 학부모회장 이복순입니다. 주위를 보면 '우리 아이를 타 시·도의 좋은 학교에 보내야 하나'하고 고민하는 학부모가 많아요. 하지만 저는 인천시민이라는 데 자부심이 크고 아이들도 같은 생각이기에 망설임 없이 인천의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특히 우리 가정의 경우 큰애가 학력향상 선도학교로 지정되기 전에 학교를 다니다 졸업했고, 이후 둘째 애가 현재 학력향상 선도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사실 큰애는 대입을 준비하기가 다소 어려웠는데, 확실히 둘째 애는 개별상담을 해 주는 등 학교에서 아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병욱_장학사

학력향상 선도학교는 진로진학 상담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도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고요, 가장 큰 변화를 느끼는 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겠지요?



김성훈_학생

인천고 전교학생회장 김성훈입니다. 전에는 하고 싶은 일이나 가고 싶은 대학에 대해 구체적인 개념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학교가 학력향상 선도학교로 지정되면서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학생들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학생에 맞춰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아이들도 하고 싶은 공부를 스스로 선택해서 하지요. 선배들을 보면 3학년이 되어서야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했는데, 우리는 2학년인데도 이미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고 있어요.

이병욱_장학사

학생들에게 '내가 왜 공부를 하고 대학에 가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생겼다는 건 상당히 반가운 일이에요. 학력향상 선도학교가 인천의 교육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지요. 그렇다면 학력향상 선도학교를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강대수_교사

교사 입장에서 말하면, 기존의 업무는 줄지 않고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업무가 더해지니 과부하가 걸리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이는 아이들에게 돌아가지요.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복순_학부형

저 같은 경우는 학부모회장을 하다보니 어머님들께서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세요. 앞서 말씀하신대로 선생님들이 업무가 과중하다보니 아이들에게 세심하게 관심을 쏟기가 힘든 것 같아요. 학부모로서 진로별로 학생들 개개인에 맞는 일대일 멘토제를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병욱_장학사

선생님들은 슈퍼맨이 아니니까,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도록 행정업무를 지원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어려운 현실에서도 고유 영역별 수업모델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아요. 또 진정으로 인천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그런 선생님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이끌어 가야 하고요.



이복순_학부형

매우 좋은 생각이에요. 사실 학부모들은 상위권 학생 위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에 불만이 많아요. 2등급 아이를 1등급으로, 3등급 아이를 2등급으로 끌어올리는 게 더 중요한 데 말이죠. 현실이 그렇다보니 학부모들도 '내 자식은 전교 50등 안에 들어야 한다. 그래야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간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중하위권 학생들도 열정을 갖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함께 이끌어 주길 바랍니다.



강대수_교사

맞아요. 학력을 끌어올리려면 가장 능력있는 선생이 중하위권 학생들을 맡아 가르치는 교육환경이 확산되어야 해요. 최상의 실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보다 아이들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게 사실 중요하지요.



이병욱_장학사

이즈음 또 궁금한 건, 학력향상 선도학교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호도입니다. '그 학교 공부 잘 가르치는 좋은 학교라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나요?



김성훈_학생

동생이 이번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데, 저와 같은 인천고를 지원했어요. 0순위 배정을 받으려고 중학생 때부터 내신성적을 열심히 관리하더라고요. 또 동생처럼 학력향상 선도학교에 가려고 노력하는 후배들이 많아요. 자연스럽게 권역 내 중학교도 학력이 동반상승하는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이복순_학부형

상위권 학생과 학부형들은 특목고를 대신해, 공부하는 분위기 속에서 학창시절을 누릴 수 있는 일반고인 학력향상 선도학교를 선호해요. 하지만 중위권 학생과 학부형들은 마음은 있지만 혹시 내신성적이 뒤처질까봐 입학하기를 주저하는 편이고요.



강대수_교사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네요. 내신으로만 대학을 가는 건 아니니까요. 내신이 일정 등급에 들면 논술, 면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어요.



이병욱_장학사

인천은 우리나라 16개 시도 가운데 특목고가 가장 적어요. 학력향상 선도학교는 특목고에 가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기도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이 학력향상 선도학교로 몰린다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네요. 또한 인천은 우리나라에서 공립고 비율이 가장 높는데요. 학력향상 선도학교는 무너지는 공립학교의 성공모델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학교를 살려야 그 안에서 숨쉬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시와 시교육청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복순_학부형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인성적인 면을 키우는 건 더 중요해요. 선생님은 열정과 사랑으로 제자를 이끌고, 제자들은 그런 선생님을 믿고 따르며 존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 교육청에서 교사를 활발히 교육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이병욱_장학사

공감해요. 잘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사로서의 열정과 소명의식도 중요하지요. 이에 선생님들의 자질과 교육력을 분석하여 알리고 있어요. 이는 문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로서 더 높이 올리기 위한 노력이지요.



김성훈_학생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학업적인 욕구를 끌어올려 주는 건 좋은데, 학교가 너무 대입 중심으로 가니까 숨이 막히기도 해요. 지나친 경쟁으로 친구들이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고, 동아리마저 진학형태로 바뀌니 학창시절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 안타깝워요.



이병욱_장학사

동아리의 순수한 목적이 왜곡되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도 대학을 생각해야 하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극복해야 해요.



강대수_교사

학력향상 선도학교는 다른 학교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에 인천고는 중학생 대상 진로진학 상담 프로그램, 모의 입학사정관제 등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향후 우리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학교에서도 적용해 함께 성장하길 바랍니다. 또 오늘 함께 이야기한 성훈 학생에게 전하고 싶네요. 학력향상 선도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친구들을 위해 무엇을 할지 시야를 넓혀 생각하고 전국 어디에서도 당당한 자랑스러운 인천의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고요.



참여 후기

학부모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대표로 전할 수 있어 의미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세 아이 모두 전교학생회장을 할 정도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하지만 한번도 우리 아이를 타 시·도의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고 나아가 인천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길 바랍니다. (이복순)

시의 교육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좋은 방안을 함께 이야기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학생회장으로서 친구들을 위해 노력하고 시야를 넓히려는 조언을 해주셨는데,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학력향상 선도학교의 선생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더 노력하자고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학교가 이상적인 모델로 성장하고 우리 프로그램을 다른 학교에서도 적용해 함께 커가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학력향상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이유니까요. (강대수)



“온종일 사진 뽑아 준 현상기에 뽀뽀하고 퇴근했죠”

글. 유동현 본지편집장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카메라가 ‘재산’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귀하다 보니 사진 찍는 것은 호사 취미 중의 취미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사진 찍히는 것조차 날을 잡아야 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였다. 카메라는 공원이나 졸업식장에 나타나는 ‘사진’ 완장을 찬 사진사의 전유물일 뿐이었다. 그런 시절부터 시작해서 디카를 장난감처럼 갖고 노는 오늘날 까지 동인천역 앞에는 여전히 성신카메라점이 자리 잡고 있다.

“대단했죠. 행락철 주말이면 필름을 사기 위해서 가게 앞에 길게 줄을 섰어요. 당시에는 우리 가게 앞에서 버스를 타야 월미도, 송도유원지, 용유도로 놀러갈 수 있었으니까 나들이 가기 전에 필름 한통씩 꼭 챙겼죠.”

성신카메라 사장 이준석(68)씨는 50년을 사진기와 함께 했다. 그가 사진과 인연을 맺은 것은 황해도에서 피난 나와 충남 광천에서 살던 때였다. 사진기를 한 대 갖고 있던 프랑스 신부 한 명이 마을 성당에 부임했다. 마을에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부는 집 벽돌을 뚫고 간유리를 설치해 암실을 만들었다. 우연히 그 암실에서 현상되는 사진을 보며 이 사장은 새로운 세상을 접하게 된다.

그는 18세되던 해에 인천에 올라온다. 극동사진관에서 사진사 보조로 일하며 2년 동안 사진기술을 익혔고 배다리 사진예술원에서 사진사로 일했다. 어느 날 중앙시장에 있는 일심상사에 들러 일제카메라 ‘페트리7s’를 1만3천원에 샀다. 짜장면이 15원하던 시절이었으니 입이 딱 벌어지는 가격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 청계천에 내다팔면 1만6천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대단한 이문이었다. 그 길로 일심상사에 달려가 월급 주지 않아도 좋으니 일만 하게해 달라고 졸랐다.

그곳에서 1년 동안 일하면서 사진기 판매 루트 등 ‘영업 비밀’을 알게 되었고 독립해 잠시 ‘나까마’로 일하며 카메라 중개상을 했다. 60년대 인천에는 타 도시에 비해 외제 중고 카메라가 많이 유통되었다. 안경점에서도 중고 사진기를 팔았고 심지어 노점상에서도 취급할 정도였다. ‘미군극동교역처’라는 공급처가 인천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패전국 일본은 물건으로 보상했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화물 속에 야시카, 코니카 등 카메라가 많이 들어 있었다. 이 물건들이 인천 시장으로 슬쩍 스며들었던 것이다.

중고 카메라 장사로 돈을 모은 그는 1970년 6월 15일 자신의 가게 ‘성신카메라’ 간판을 단다. 당시 인천에서 가장 비싼 금싸라기 동네에 문을 연 데다 마침 컬러필름이 선보이기 시작했고 서서히 카메라가 일상화되던 시기와 맞아떨어져 문턱이 닳아 없어질 정도였다. 하루에 필름 1천롤을 팔만큼 장사가 잘되었다. 단지 필름만 판 게 아니라 카메라와 각종 부품도 판매했으며 ‘카메라 대학병원’이란 간판을 달고 수리도 했다. 한견에 사진관 공간을 만들어 마그네슘 가루 터트리며 찰칵이 사진도 찍었다.

그 시절 그가 겪었던 에피소드 한 토막. 어느 날 청년 한명이 명함판 사진을 찍겠다고 왔다. 언뜻 보니 신영균 같이 생긴 미남이었다. 그런데... 아, 자세히 보니 마마를 앓은 흔적이 있었다. 그는 사진을 찍고 돌아갔고 이 사장은 연필로 정성껏 얼굴 수정을 했다. 요즘말로 ‘뽀샵’을 한 것이다. 며칠 후 사진을 손에 쥔 그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사진관을 나섰다. 이 사장은 이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서너 달이 지났을까. 중년 여성 한 명이 사진관에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이 사장의 뺨을 후려쳤다. 사연인즉, 그 청년은 중매쟁이를 통해 사진을 한 처녀에게 전달했고 사진 속 모습이 맘에 든 처녀는 그 청년을 만났는데 어찌어찌하다가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다. 모든 게 사진의 ‘조작’ 때문이라고 생각한 처녀의 엄마는 사진관으로 쳐들어 왔던 것이었다. 둘은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둘 낳고 잘살고 있으며 이 사장과 그 부부는 지금도 서로 연락하고 산다. 물론 중매값으로 5만원 짜리 양복 한 벌을 얻어 입기도 했다.

장사가 잘되자 카메라점 이층을 사진관으로 꾸미고 큰돈 들어 자동 현상기 한 대를 사들였다. 한창 때는 하루에 둘사진, 가족사진, 증명사진 등 500번 이상을 촬영했고 자동 현상기는 하루에 200롤 이상의 사진을 뽑아냈다. 이 정도를 해내려면 기계는 잠시도 쉴 수가 없다. 고장이라도 나면 제 때에 납품을 할 수가 없어 타격이 컸다. “사람도 사람이었지만 기계가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서 ‘오늘 아프지 않아 고맙다’하면서 꼭 뽀뽀를 해주고 퇴근 했어요”

내친김에 그는 1981년 길 건너편에 ‘후사코상사’라는 인천 유일의 필름 도매상을 차렸다. ‘후사코’라는 이름은 후지, 사쿠라, 코닥의 앞 글자다. 당시 자신의 가게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필름의 순서로 만든 이름이다. 필름회사 납품차량들이 문도 열기 전에 서로 물건을 대려고 진을 칠 만큼 후사코상사는 인천업계에서는 큰 손이었다. 필름과 카메라의 하루 매상이 당시 웬만한 집 한 채 값이었던 1천만원을 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후사코가 들어서있던 목조건물에 불이 났다. 화마는 그의 재산을 몽땅 잿더미로 만들어버렸고 결국 그는 다시 원래의 자리 성신카메라로 돌아왔다. 다행히 이쪽 사업은 관공서와 학교는 물론 일반인들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며 여전히 호황기를 이어갔다. 특히 학교마다 사진반이 생기면서 가게 안에는 카메라를 멘 학생들로 늘 북적거렸다. 당시 동인천역 부근에는 성신카메라 외에도 제일카메라, 현대카메라, 김씨카메라 등이 있을 만큼 카메라 관련 장사는 재미보는 사업이었다. 개그맨 이혁재씨의 부친도 ‘축현사’라는 간판을 걸고 인근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며 동에서 번쩍서에서 번쩍하며 활약할 때였다.

그러나 천년만년 갈 것만 같았던 필카(필름카메라) 업계에 서서히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듣도 보도 못한 ‘디카’가 등장한 것이었다.

“처음 디카를 보곤 그냥 웃어넘겼어요. 사진 맛이 안 나기 때문에 몇 대 팔리다가 없어질 거라고 다들 그랬죠. 히히, 완전 오산이었죠. 이제 필카는 골동품 취급도 못 받아요. 오죽하면 코닥이 망했겠어요.”

70년대 초반 사진 한 장 현상하는데 100원이었다. 당시 짜장면 한 그릇에 80원이었다. 그래서 한롤 현상하면 짜장면 10그릇 팔았다고 좋아했단다. 요즘엔 한 장에 300원이다. 별 재미가 없다. 게다가 일거리가 없어 하루 종일 5롤도 현상하지 못한다. 그래서 현상소는 거의 문을 닫았다. 남은 곳도 현상기를 없애고 성신카메라에 일감을 몰아준다.

그는 현상되는 사진을 보면서 세태가 많이 변한 것을 느낀다.

“예전에는 가족사진을 찍으러 오면 10명 이상이 보통인데 요즘은 달랑 셋이예요. 2, 30년 전만해도 부부가 찍은 사진은 별로 없고요, 있더라도 서로 닮보듯 떨어져 찍었죠.”

갑자기 이 사장의 목소리가 나지막해진다. “요즘은 어떤 줄 아세요. 부부 누드 사진은 물론 성행위 장면까지 찍어가지고 와요. 허, 참 요지경이예요.”

5년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갓 결혼한 여성이 신혼여행 가서 찍은 거라며 필름 20통을 맡기고 갔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찾아가질 않아 규정상 모두 폐기시켰다. 3년 가량 지났을 때 그 여자가 다시 필름을 맡기고 갔다. 현상해 보니 태국 파타야에서 찍은 사진인데 남편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달포 전에 성신카메라는 40년 동안 굳건히 자리 잡았던 곳에서 바로 뒷골목으로 물러나 앉았다. 그동안 남편을 도와 수없이 사진기 셔터를 눌렀던 이 사장의 부인이 원래 자리에 튀김 닭집을 냈다. 뒤로 물러난 성신카메라는 이제 대학에서 광고사진을 전공한 아들 이승현(38)씨가 요즘 트렌드에 맞게 스튜디오를 꾸며 운영할 계획이다.

부인의 닭집에는 아직 성신카메라점 간판이 걸려 있다. 노란 코닥 마크와 ‘사진의 모든 것’이라는 문구가 써있다. 그 간판은 오래지 않아 내려질 것이다. 사진과 관련된 추억을 품은 오래된 공간 하나가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다.





거리를 걷다보면 뜨끈한 오뎅, 고소하고 삼삼한 순대, 먹음직스러운 빨간 떡볶이에 발걸음을 멈추게 된다. 도로 위에 서서 찬바람 피하고, 언 손을 녹이며 먹는 길거리 음식은 색다른 즐거움이다. 소시지, 계란빵, 꿀타래, 토스트, 구운 호떡, 어묵 핫바의 등장은 오뎅, 순대, 떡볶이가 주름잡던 길거리 음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주머니 가벼운 서민들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독특한 인천의 길거리 음식의 세계로 가보자.

글. 이용남_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성환_포토저널리스트



중국식 호떡으로 유명한 공갈빵. 중국인들에 의해 전파된 공갈빵 기술을 지금은 한국인들이 이으며 맛을 전파하고 있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어린아이 머리통만한 공갈빵이 먹기에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막상 손에 들면 무척 가볍다. 단단한 껍질을 깨면서 '이래서 공갈빵이라는 이름이 붙었구나' 생각된다. 공갈빵은 바삭한 껍질 안쪽에 녹아있는 달콤한 설탕이 바삭한 껍질의 담백한 맛과 오묘한 조화를



신포시장 명물 '공갈빵'

이루고 있다. 화덕에 구운 공갈빵은 2분에 하나씩 부풀어져 나온다. 달달한 맛에 간식으로 부담이 없어 공갈빵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늘 줄을 선다. 신포시장 내 공갈빵을 직접 만들어 파는 집은 두 곳이다. 산동 공갈빵과 신포공갈빵이다. 산동공갈빵은 하루 4백여 개의 공갈빵을 만들고, 아침 10시 30분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영업한다. 공갈빵의 가격은 1개 1천5백원이다.



인하대 후문 전설의 '계란빵'

84년부터 인하대 후문에 자리 잡은 전설의 계란빵. 노란반죽에 싱싱한 계란 한 알을 톡 깨뜨려 8분간 굽는다.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30년 가까이 돈 없고 배고픈 학생들의 배를 든든히 채워주었다. 한 입 베어 물면 빵 속에 영양가득 고소한 계란 하나를 온전히 먹게된다. 이 집은 전국에 계란빵 열풍을 일으킨 원조다. 빵 맛의 비결은 주인할아버지가 10여 년간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이 빛을 눈물겨운 결과다. 서울 종로에서 한때 이름을 날렸던 '오방빵'장사를 했던 할아버지는 빵에 계란을 넣으면 어떤 빵이 될까를 늘 고민하고 연구했다.

84년 인하대 후문에서 장사를 시작한 뒤에도 낮에는 장사를 하고 밤에는 비법 개발에 몰두 10여 년 만인 92,3년에 지금과 같은 맛을 내는 계란빵을 완성했다. 84년 100원부터 시작했던 계란빵은 서민의 호주머니 사정을 고려, 인상이 불가피 할 때마다 부득이 50원씩 올렸다. 계란빵의 현재 가격은 1개 500원. 계란빵을 사먹는 대부분이 학생인데 가격을 올리면 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할아버지는 계란빵을 한두개 정도 먹으면 라면을 먹은 것처럼 배가 든든하다고 말한다.



차이나타운 '꿀타래'



옛날 왕과 귀한 손님에게만 대접했다는 궁중다과 꿀타래. 꿀과 엿기름을 숙성해서 만든 딱딱한 꿀덩이를 이용해 만든다. 꿀타래는 달콤하고 그 속에 들어간 고명인 아몬드, 땅콩을 같이 씹는 순간 고명의 아삭하고 고소한 맛에 혀가 황홀경에 빠진다. 냉동실에 차게 얼렸다가 따뜻한 차와 함께 먹으면 더 잘 어울린다. 꿀타래는 달콤한 맛도 맛있지만 타래를 만드는 과정이 재미있고 신기하다. 꿀과 엿기름으로 숙



성한 딱딱한 꿀덩이 가운데를 뚫어 두 가닥이네 가닥, 여덟 가닥으로 변하며 결국 14번의 늘리는 과정을 통해 수염처럼 가는 일만사천 가닥의 꿀실을 직접 손으로 뽑는 시연을 볼 수 있다. 실보다 더 가는 일만사천 가닥의 꿀실을 뽑는데 2~3분이면 충분하다. 실은 장수와 건강 그리고 행운과 소원을 기원한다. 10개가 들어있는 한 상자 가격은 6천원이다.

맛에 반해 한입, 두입 입맛 당긴다.



등산객 입맛 사로잡은 '토스트'



청량산 입구, 시립박물관 옆에 위치하고 있는 야채토스트 포장마차. 청량산을 등산하는 시민의 출출한 배를 20여 년간 채워줬다. 토스트는 빵을 노릇노릇하게 마가린을 넣어 굽고, 양파, 당근, 파 등 야채와 달걀을 섞은 부침을 만든다. 노릇하게 구워진 빵에 계란부침을 넣고 설탕과 케첩을 뿌린다. 토스트는 달콤하면서 부드러운 맛으로 입맛을 당긴다.



이곳 토스트 포장마차는 20년간 청량산 등산객과 동고동락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4시간 불을 켜고 손님을 맞았다. 포장마차 주인은 등산객이 많이 다니는데 여기서 장사를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에 시작했고, 현재에 이르렀다. 처음엔 등산객을 대상으로 커피만 팔았다. 후에 요기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다 토스트를 추가했다. 토스트 가격은 2천원, 커피 5백원.



구월동 로데오거리를 걷다 보면 어디선가 소시지를 굽는 맛있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한다. 구월동의 명물 소시지가 익어간다. 철판 위에는 심지어 소시지가 이리저리 돌려지며 구워진다. 국산 돼지고기 각종 야채를 넣어 만든 소시지는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할 만큼 영양이 풍부하다. 여기에 매콤하고 달콤한 소스를 바르면 눈도 즐겁고



구월동 로데오거리 '소시지'

입은 더 즐거워진다. 구월동 소시지집 '소시지야'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영업한다. 가격은 1개에 2천5백원, 빵과 야채를 곁들여 먹는 핫도그는 3천원이다. 구월동 뉴코아백화점이 있는 골목안에 있다.



어묵계의 종결자, 어묵의 달인이 수제 어묵 핫바를 만든다. 어묵공장에서만 35년간 일한 노하우가 생선의 종류별 특징은 물론이고 각 생선들이 어떤 양념, 어떤 야채와 어울리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안다. 이곳의 어묵핫바는 생선 84%, 나머지는 야채와 밀가루가 들어간다. 핫바의 종류도 치즈, 게맛살, 소세지, 갯잎, 해물, 베이컨 등 종류도 다양하고, 그 자리에서 반죽돼 튀겨진다.



수제 '어묵 핫바'

핫바는 손님들의 취향에 따라 매콤한 맛, 겨자맛 소스를 뿌려 튀김의 느끼한 맛을 없앴다. 이 집의 핫바는 씹으면 씹을수록 생선살의 고소한 식감을 느낄 수 있어, 입맛을 돋운다. 또 생선과 야채가 어우러져 재료의 생생함이 그대로 느껴진다. 핫바 가격은 1천원에서 1천5백원, 신포시장 내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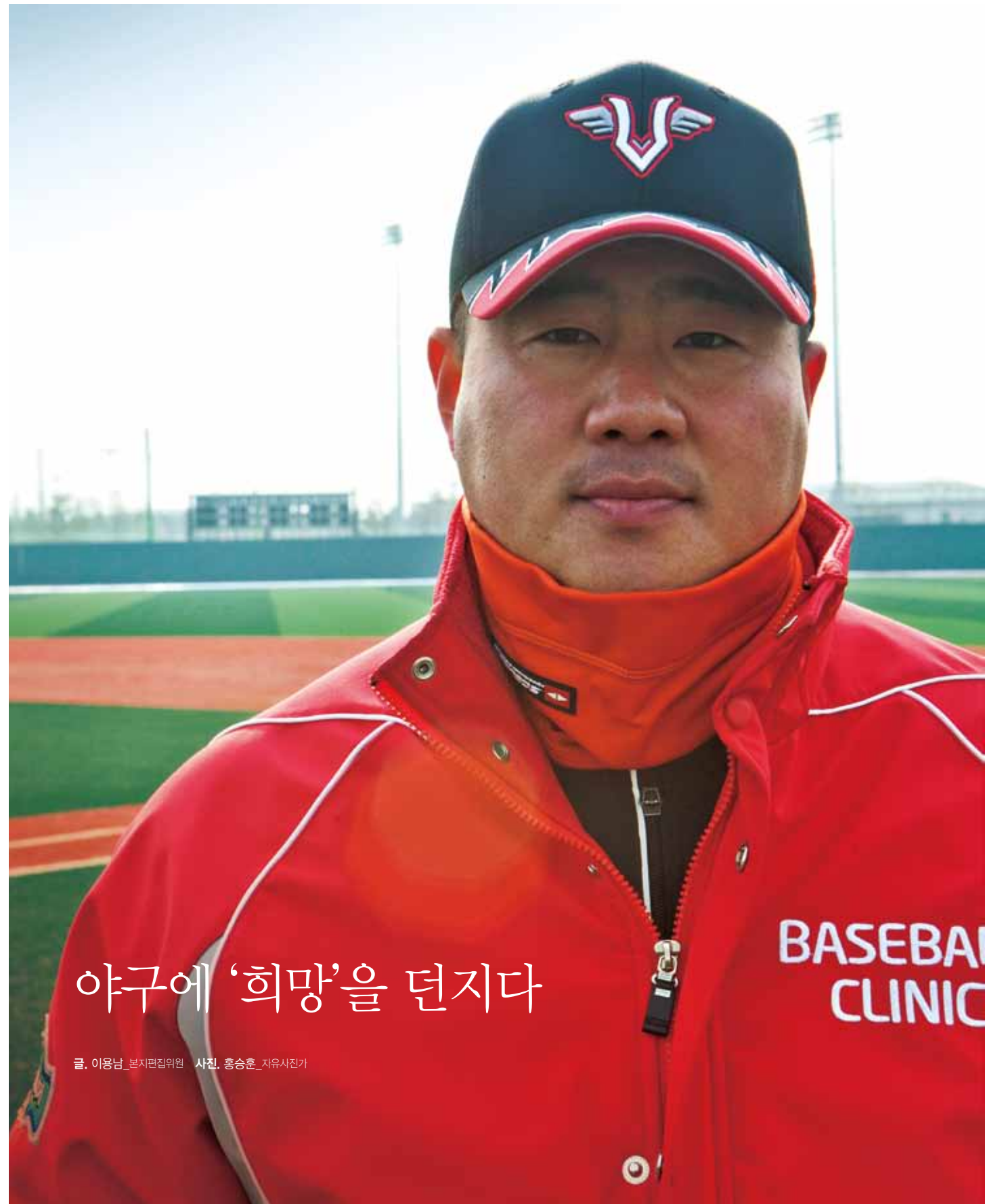


구월동 뉴코아 백화점 앞에는 길거리 음식 중의 하나인 구운 호빵을 파는 포장마차가 있다. 기름을 전혀 넣지 않아 담백하고 고소하다. 호빵 반죽은 그 자리에서 직접해 손님들에게 보여준다. 반죽에 노란 설탕과 안고를 넣어 노릇노릇하게 굽는다.



구월동 '구운 호빵'

단백하며 식어도 과자처럼 바삭바삭한 것이 맛의 특징이다. 냉장고에 넣어 일주일 뒤 전자레인지에 10초 정도 데워 먹어도 고소하고 바삭한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농아 부부가 만드는 이곳 구운호빵은 기름 지지 않아 손님들로부터 인기가 많다. 구운호빵 1개 1천원.



야구에 ‘희망’을 던지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야구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힘이되고, 희망이 됐으면 합니다.”



“야구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힘이되고, 희망이 됐으면 합니다.”

최근까지 프로야구에서 포수로 활동하다 은퇴한 후 인천의 저소득층 어린이야구단인 ‘승리 야구단’의 감독을 맡은 이도형씨(38), 이 감독은 이 야구단에 재능기부 형태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처음에는 그냥 자문만 했었는데 나중에는 도저히 안되겠더라고요. 제가 직접 지도하는 것을 아이들도 좋아하고 저에게도 더 보람이 될 것 같아 직접 맡게 되었습니다.”

이 감독은 보통 야구는 돈이 많이 드는 스포츠로 알고 있어 하고 싶어도 주저하는 경향이 많지만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싶었다.

승리야구단은 초등학교 3~6학년 어린이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송도에 있는 LNG기지 보조야구장에서 연습을 한다. 연습에는 이 감독 말고도 그가 속해 있는 야구 관련 회사의 직원, 전직 야구선수가 같이 참여, 아이들의 폼과 수비방법 등을 지도한다.

이 감독은 아이들에게 야구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아이들 유니폼 장비구입에 사비를 털었다. 야구단이 창단했는데 아이들도 유니폼을 입고 싶어 하고 유니폼을 입어야 제대로 된 훈련

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이 감독은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야구를 통해 좋은 인성을 배우고,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길 바란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의범절, 인사잘하기, 욕하지 않기, 바른행동을 항상 강조한다.

이 감독은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야구를 시작했다. 선수들이 유니폼 입은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여 시작했다는 그는 두산 9년, 한화이글스에서 9년 등 프로야구에서만 총 18년간 포수로 활약했다.

이 감독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야구인생을 돌아보곤 한다. 야구선수는 많지만 이들 중 5~10%만이 프로야구 선수가 된다. 선수들이 공부 보다는 운동에만 몰입하다 보니 정작 운동을 그만뒀을 때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에, 공부도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되길 희망한다.

이 감독은 인천에서 사회인 리그제를 만들 생각이다. 사회인리그에 참여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야구도 가르치고 대회도 열어 아마추어 야구 활성화화를 꾀할 계획이다. 프로야구 선수에서 가르치는 감독으로 변신한 그의 제2의 야구인생에 더 큰 나라가 펼쳐지길 바란다.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던 스물일곱 아가씨가 용접사가 되었다’



‘불꽃’ 튀는 도전은 계속된다

글. 정경숙_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성환_포토저널리스트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던 스물일곱 아가씨가 용접사가 되었다. 한가로운 오후, 책장을 넘기듯 잔잔한 일상에서 벗어나 선택한 현장에서의 삶. 아침 8시면 공장에 나가 하루 종일 ‘불꽃’을 틔우며 땀 흘리지만, 그녀는 지금 행복하다.

정선영(27·서구 연희동)씨는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여느 사람들이 그렇듯 졸업 후 자연스럽게 도서관에서 일했다. 하지만 우연히 브라운관에서 여성 용접사를 본 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남자들의 영역에 도전해 당당하게 자아를 실현하는 여성의 모습은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왔다. 평범하게 살기보다 남과 다르게 더 열정적으로 살고 싶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인생의 향로를 바꾸었다.

“재미있어 보였어요. 낙천적이면서도 무뎠던 성격에도 잘 맞을 것 같았고요. 또 무엇보다 쉽게 접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에 도전하고 싶었어요.”

금녀의 영역을 넘어 용접사가 되기로 마음먹은 그녀가 처음 문을 두드린 곳은 한국폴리텍II대학 남인천캠퍼스. 꿈을 이루게 해주리라는 믿음으로 주저 없이 특수용접과에



입학했다. 정씨는 학생 65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었지만, 남학생들 앞에서 주눅 드는 일 없이 묵묵히 꿈을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졸업을 앞 둔 최근, 그동안 땀 흘린 노력의 대가로 내실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결실을 이루었다.

그녀가 몸담고 있는 세광엔지니어링은 미국, 일본, 독일 등 기술선진국에

전체 물량의 70% 이상을 수출하는 오일쿨러 전문생산업체. 기능직 직원 가운데 여성으로는 정씨가 유일하다. 용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틈새도 용납하지 않는 정밀함을 요하는 작업이기에, 기업은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높이 사 정씨를 선택했다.

인생의 새 장을 힘차게 젖힌 정씨는 최근 더 큰 목표를 세웠다. 현재의 위치에서 자신을 담금질하고, 머지않아 R/T(X-레이검사)자격을 취득해 전문용접사로 거듭나는 것이다. 화장이 없는 맑은 얼굴에 내일의 희망이 햇살처럼 환하게 번진다.

‘여자는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편견에 맞섰고, 그녀는 해냈다. 그 ‘불꽃’ 튀는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올해 우리시에서는 예년에 볼 수 없던 화려한 작품들을 잇따라 선보인다. 1년 내내 관객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농치면 후회할 공연들을 소개한다.

음악회와 연주회 먼저, 오는 9일 스위스 취리히 국립음대 챔버 오케스트라가 인천을 찾는다. 14명의 연주자가 역동적인 앙상블을 들려준다.

3월에는 한국 클래식계를 대표하는 스타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국내 무대 데뷔 10주년을 맞아 리사이틀을 연다. 같은 달 8일, 독일의 '뉴 필하모니 함부르크'가 무대에 오른다. 독일 등 유럽 20개국의 젊은 음악가들이 실력과 재치, 감각이 돋보이는 세련된 실력을 뽐낸다.

6월 20일,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가 현대적 감각에 맞는 화려하고 세련된 선곡으로 인천관객을 찾아온다. 7월에는 리처드 용재 오닐, 지용, 마이클 니컬러스 등이 참가하는 '앙상블 디토'가 무대에서 러시아 대표 작곡가의 명곡을 연주한다. 10월 24일, 러시아 국립 레드아미 코러스&레드스타 댄스 앙상블이 '검은 눈동자', '백학' 등 러시아 민요를 합창과 춤으로 보여준다.

뮤지컬과 연극 2월 24, 25일 이틀간 인순이, 박해미, 홍지민이 출연하는 뮤지컬 '캣츠' 공연이 펼쳐진다. 5월 가정의 달에는 세계 60여 개국에서 인기를 끌며 방영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안아줘요 무무'가 뮤지컬로 변신해 어린이들을 맞이한다. 또 스페인의 국보로 칭송받는 무용가 카르멘 모타의 열 번째 작품인 플라멩코 댄스 뮤지컬 '알마'가 무대에 오른다. 또, 대학로 첫 공연을 시작으로 드라마로 제작돼 신드롬을 일으킨 인기작 '옥탑방 고양이'가 5월 연극으로 관객을 찾아온다.

기타 공연 2008년부터 시작해 관객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온 커피콘서트가 매달 열린다. 시립합창단 윤학원 예술감독의 무대를 비롯해 시립교향악단 금난새 예술감독, 포크그룹 해바라기,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 등을 만날 수 있다. 1만원이라는 파격적인 티켓 가격과 향긋한 커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공연.

8월에는 12개팀이 참가해 클래식을 연주하는 '서머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또 11월에는 1999년 영국에서 처음 공연한 뒤 미국 유럽 등 32개국, 93개 도시를 순회하며 관객을 열광시킨 댄스버라 이어티쇼 '번 더 플로어'가 인천을 찾아온다.

이 외에도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금·토요일 야외상설공연장에서 무료로 펼쳐지는 다양한 공연, '황금토끼'를 감상할 수 있다.

공연문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420-2736 artincheon.go.kr

인천시립교향악단 315회 정기연주회 » 피아노 & 피아니스트 시리즈 I

인천시립교향악단이 아심차게 준비한 '피아노 & 피아니스트 시리즈'의 첫 번째 무대가 2월 8일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피아노가 가지고 있는 매력의 최대치를 보여 줄 이번 기획은 피아노의 시인이라 불리는 게오르기 체르킨과 함께 한다. 불가리아 출신의 체르킨은 러시아의 문화와 예술을 대중화 시키는 데 공헌해 특별 예술상인 'ZOLOTOIA MUZA'를 수상했으며, 특히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연주를 통해 널리 인정받아 음악에 대한 최고의 성취를 나타내는 권위 있는 'CRVSTAL LIRE 2001'을 수상했다. 또한 2006년 KBS 드라마 '부활'의 OST곡을 관현악으로 편곡해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었다. 그가 이번 무대에서 연주할 곡은 높은 기교와 음악성을 요구하며 피아노 협주곡 가운데 가장 어려운 곡으로 알려진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제3번」이다.

일시 2월 8일(수)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인천시립극단 제61회 정기공연 » 바람의 비밀

모험 동화로 유명한 <바람의 비밀>이 인천시립극단에 의해 연극으로 다시 태어난다. 인천시립극단은 매년 초, <헨젤과 그레텔>, <어린 왕자> 등 아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어른에게는 가슴 한곳에 묻어둔 보물상자를 꺼내 볼 수 있는 가족극으로 관객들의 감성을 두드려왔다. 몇 달째 우울증에 시달리는 구름 왕이 납치한 엄마를 구하기 위해 숲과 땅속 세계, 동굴을 거치며 용기, 지혜, 사랑, 믿음이라는 네 가지 시험을 통과한 알리오사가 자연의 소리를 듣고 성장하는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모험심을 길러 줄 것이다.

일시 2월 3일(금)~19일(일) 평일 오전 11시, 오후 1시 / 주말 오후 2시, 5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일반 1만5천원, 청소년 1만2천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기획 공연 » 뮤지컬 <캣츠>

뮤지컬 최고의 작품으로 손꼽히는 <캣츠>가 2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1981년 탄생,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이 고양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7천300만 관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각양각색의 고양이들의 축제를 그린 <캣츠>는 영국의 대문호 T.S 엘리엇의 시 '지혜로운 고양이'가 되기 위한 지침서'를 토대로 음악의 귀재 앤드루 로이드 웨버와 제작의 마술사 카메론 매킨토시가 콤비를 이루어 탄생시킨 최고의 역작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한국의 BIG 3디바 인순이, 박해미, 홍지민이 그리자벨라 역으로 출연해 더욱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객석을 누비며 관객과 호흡하는 개성 강한 35마리의 고양이들과의 멋진 밤을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일시 2월 24일(금)~26일(일)
24일 오후 7시30분 / 25일 오후 3시, 7시 30분 / 26일 오후 2시, 6시 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문의 티켓마루 1588-0766

특별 공연 » 서사극 <월남 이상재>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세상에서 이 나라의 청년들에게 배움의 장소와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일생을 바친 월남 이상재 선생의 삶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조선 말 개화사상이었던 월남 이상재 선생은 권력의 유지보다는 백성의 평안을 중시하던 북학파 선비이자 독립신문을 창간한 독립협회 3인방 중 한사람이었으며, YMCA를 통하여 물산장려운동, 절제 운동 등을 펼치며 나라의 힘을 키우는 데 온 노력을 다한 독립운동가다. 월남 이상재 선생이 안정된 직업과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경쟁에 내몰리는 이 땅의 청춘들에게 고하는 이 땅의 의(義)와 정의, 청년정신에 귀 기울여 보자.

일시 2월 17일(금)~18일(토) 오후 3시, 7시 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초대 **문의** 02-540-2310

영화와 클래식의 만남 » 발렌타인데이 아르츠콘서트

지난 해 '발렌타인데이 아르츠콘서트 - 세기의 사랑' 이 첫 선을 보인 후, 영화와 음악의 만남이란 새로운 컨셉과 컨텐츠가 공연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며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왔다. 2012년, 새롭게 돌아온 '발렌타인데이 아르츠 콘서트' 그 두번째 이야기 - LOVE ACTUALLY! 동시대를 살아가며 서로 교류하고, 서로에게서 영감을 받으며 무수히 많은 명작을 남긴 예술가들의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미술과 음악의 특별한 만남에서 오는 조화로움 앙상블! 이 모든 것이 국내 최고의 미술해설가 윤운중의 프리미엄 해설과 유럽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온 차세대 피아니스트 윤홍천, 또한 정성급 성악가 및 아르츠앙상블의 연주로 난해하기만 했던 미술과 클래식 음악이 재밌고 탄탄한 스토리로 생생히 부활할 것이다.

일시 2월 11일(토) 오후 5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티켓 전석 2만5천원
문의 500-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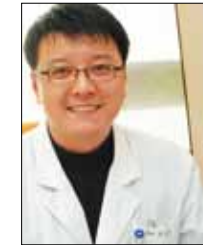
인천 & 아츠 공연 » 취리히 국립음대 챔버 오케스트라 내한연주회

이 시대 최고의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야샤 하이페츠의 생애 마지막 제자인 루돌프 코엘만 교수가 2005년 창단한 취리히 국립음대 챔버 오케스트라(ZHdK Strings), 세계적인 연주자들을 양성하고 있는 스위스 취리히 국립음대에서 마스터 클래스와 솔리스트 클래스 과정을 밟고 있는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젊고 역동적인 앙상블이 인상적인 이들은 이탈리아와 스위스의 다양한 페스티벌과 콘서트 홀에서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14명 신진 연주자들의 열정과 매력이 반짝이는 잊지 못할 시간이 될 것이다.

일시 2월 9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일주일에 하루만 쉬면, 혜택 ‘빵빵’

그림. 안종만



컴퓨터세대 거북이목 비상!

글. 김홍훈_나사렛국제병원 한방침구과 과장

최근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뒷목의 통증과 어깨결림 등을 동반한 일자목(거북이목 증후군)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이 늘었다.

경추는 본래 완만한 C자형의 곡선을 유지하고 있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머리가 앞으로 숙여진 자세가 지속되다보면, 목뼈의 배열이 일자형으로 뻗뻗해지는데, 이같은 상태를 거북이목 증후군 혹은 일자목 증후군이라고 한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항강증(項強症)이라고 하며 증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특별히 목을 빼갸하거나 다친 적이 없는데도 뒷목과 어깨, 견갑골 부위에 뭉치고 결리는 통증이 있다. 또 같은 자세로 잠시 앉거나 서있어도 이러한 증상이 심해지고, 더 심한 경우에는 팔과 손가락이 저리거나 힘이 약해지기도 한다. 또 고개를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힐 때 등줄기를 따라 전류가 흐르는 듯 찌릿찌릿한 느낌이 나기도 한다. 이러한 일자목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경추 및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되고 목디스크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치료방법으로는 목뼈의 배열을 교정하는 추나요법, 뼈와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약물요법, 통증완화에 효과적인 침구요법 등이 있으며, 이 같은 치료법을 통해 통증감소, 근육 및 인대강화와 함께 퇴행성 변화를 예방하는 단계까지 꾸준히 치료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무엇보다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게 가장 좋은 예방법이다.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다가도 간간히 목을 뒤로 젖히는 운동이나 턱을 당겼다가 본래 위치로 돌려놓는 턱 당기기 운동을 반복해 주는 것이 좋다. 또 하루 24시간 중, 수면하는 7~8시간 정도만이라도 경추를 바른 자세로 유지해 낮 동안 긴장한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키는 것도 거북이목 증후군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다.



목 디스크 예방수칙

- ① 1시간 안에 10분은 휴식을 갖고 간단히 목스트레칭을 해준다.
- ② 허리는 곧게 펴고 턱은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듯 반듯한 자세로 앉는다.
- ③ 넥타이는 손가락 두 개 정도 들어갈 만큼 여유롭게 맨다.
- ④ 휴대전화나 MP3 플레이어 등을 목에 걸지 않는다.
- ⑤ 과도한 목운동이나 힘이 지나치게 들어가는 요구되는 신체교정은 피한다.
- ⑥ 컴퓨터 사용시간을 가능한 줄이고 자세를 바르게 유지한다.

카빈소총 탄약통 돈통으로 활용



금속금고_일제시대

글. 김윤식_시인 사진. 홍승훈_자유사진가

금고도 필경은 근대 개화 문물의 하나였을 터인데도 그것이 일상에 흔히 쓰이고 소비되는 물건이 아니어서인지 그에 관련한 별다른 기록이나 사연을 찾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 금고가 전해진 정확한 때가 언제인지 또 우리 인천에는 어느 때, 누구에 의해, 어떤 식의 금고가 들어왔는지 알 길이 없다.

금고는 문자 그대로 ‘금’을 넣는 ‘곳집’ 즉 ‘곳간이나 창고’를 뜻하는 말이다. 물론 손금고 같은 소형 금고도 있기는 하지만 말의 본뜻이 이러하다는 것이다. 금은 또 실제의 금뿐만 아니라 현금과 채권, 귀금속 같은 보화(寶貨)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니, 금고는 아무리 보아도 일반 서민용은 아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고라는 단어조차도 모른 채 살았을 것이다.

오늘날의 금고는 손금고서부터 100kg이 넘는 육중한 몸매의 철제 금고 등 다양하다. 웬만한 회사 경리부서에서부터 전당포, 은행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것은 방 전체가 금고인 ‘금고실’이다. 전당포 주인을 제외하고 금고를 ‘일상에 흔히 쓸 수’ 있는 개인은 최상위 부자 계층뿐으로 금고 하나쯤 자기 집안 깊숙한 곳에 모셔 두고 있을지 모른다.

인천에 어떤 형태의 금고든 금고가 전래된 것은 개항과 동시에 들어온 외국 무역상사와 은행 등 금융기관의 개업 때문일 것이다. 그 이전까지 우리나라에는 벽장 속의 돈 께작이나 땅 속에 묻어 둔 향아리밖에 없었다. 6·25 후 흘러 다니던 카빈소총 탄약통이 한때 중앙시장 비단 가게 주인마님의 금고 역할을 하기는 했다.

개항 이후 도입되어 지금까지 인천에 남아 있는 근대식 금고는 현재 중앙동 1가에 있는 구일본제일은행지점(舊日本第一銀行支店) 부속 금고와 중앙동 2가의 구일본제18은행 금고가 대표적이다. 특히 일본은 인천에 해관(海關)이 설치되던 1883년, 관세를 독점 관리하기 위해 구일본제일은행부산지점 인천출장소를 개설했는데, 세금과 주요 통관 서류를 보관할 금고가 필요했을 것이다.

인천개항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는 현존 건물의 금고실은 본관과 함께 1899년에 지

어졌다. 따라서 오늘날 남아 있는 금고는 출장소로 개점했던 초기의 금고가 아닐지도 모른다. 개설 16년 만에 짓는 새 지점 건물이니 틀림없이 확장해 지었을 터이고, 금고도 거기에 맞춰 규모가 큰 새 것으로 교체 설비했으리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1890년 10월에 개점한 구일본18은행지점(舊日本一八銀行支店)과 1892년 7월에 개점한 구일본제58은행지점(舊日本五八銀行支店) 금고가 더 오래되지 않았을까 싶다. 전자는 현재 개항장근대건축전시관으로 변모했고, 후자는 사건물이어서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다. 특이한 것은 제일은행과 58은행은 본관 밖에 별도의 금고실을 지었는데 18은행은 내부에 설치한 점이다.

외국 무역상사로는 개항과 함께 달려 들어온 독일계 세창양행(世昌洋行)이 외국은행 대리점, 보험업, 고리대금업 등을 한 것으로 보아 규모 있는 금고를 가졌었을 것이고 미국계 타운센드상회 역시 은행대리점을 병행했으니 든든한 금고를 비치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두 곳 다 기록이든 흔적이든 남은 것이 없다.

“인천시청 뒷거리 첫 모퉁이에 서 있는 볼품 있는 흰 2층 양관으로서 초석(礎石)에 H.S.B.C. 1898년 8월이라고 새겨져 있고 또 1층 안에 굉장히 큰 금고가 있어서 이 채롭다. 1896년 10월 인천지점을 개설한 ‘홀·링거 양행(Holme Ringer & Co.)은 그 본점을 일본 나가사키’에 두고 있는 영국계 상사로서, 당초에는 현 인천시 해안동 모처에 임시로 사옥을 가졌다가 1898년 8월에 신사옥을 건축하였는데, 전기 H.S.B.C.라 함은 홍콩상하이(Hongkong & Shanghai Bank Corporation) 인천지점의 영문 첫 자를 떼어 표시한 것이므로, 큰 금고가 있게 된 연유도 스스로 해명되리라 믿는다.”

고 최성연(崔聖淵) 선생의 저서 『개항과 양관 역정』에 보이는 구절인데 금고에 대한 언급으로는 거의 유일한 것이다. 후일 전란(戰亂)에도 멀쩡했던 이 양관을 부술 때 금고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 여기서 ‘인천시청 뒷거리’는 지금 중구청 뒤편 모 모텔과 한식 음식점이 있는 터전을 말한다.

금고는 귀중품이나 서류를 아주 은밀하게 보관하는 것이 그 근본 쓰임이어서 승인 받은 극소수의 관계자 외에는 일반의 접근이 어려운 데다가 그에 얹혀 무슨 큰 사건이 터지지 않은 한 금고 자체가 화제가 될 이유가 없고, 또 서민의 삶과는 직접 관련을 가지지 않은 까닭에 일상에 아무런 일화를 남기지 않은 것이다. 굳이 찾는다면 과거 일인(日人)이 우리 문화재를 수집하기 위해 세운 전라북도 군산 소재 시마타니 금고 같은 것이 그나마 이야기 거리가 될는지 모른다.



나무금고_구한말



갈색나무_5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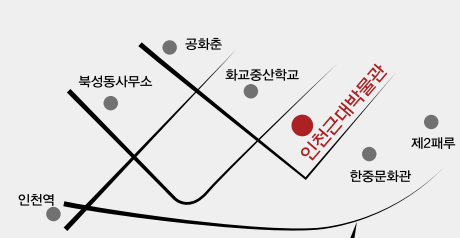
흰색나무금고_6~70년대



대형금고_일제시대



별난 역사, 별난 물건 시리즈에 게재된 금고 관련 물건 및 사진은 중구 차이나타운에 있는 인천근대 박물관(관장 최웅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엔 희귀한 근대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람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료는 성인 2천원, 학생 1천원. 문의 764-1988



죽산(竹山) 조봉암 선생 동상 건립 추진



간접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사형당한 인천 출신 독립운동가 죽산 조봉암(1898~1959) 선생의 동상을 세운다.

새얼문화재단은 조봉암 선생을 추모하고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성금을 모아 동상을 세우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단은 지난해 1월 조 선생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후부터 시민들을 상대로 성금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

모금 운동은 올해 하반기까지 8억원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현재 목표액의 80% 수준인 6억5천여 만원이 모였다.

단체는 목표액이 거의 채워지면 동상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동상 옆에는 비석을 세워 조 선생 업적과 후원자 명단 등을 새긴다.

재단의 한 관계자는 “회원과 비회원을 가리지 않고 많은 시민이 성금 모금에 참여하고 있다”며 “각 계각층을 동상 설립을 위한 회의에 포함시켜 적당한 장소에 동상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1899년 9월 25일 경기도 강화군의 빈농 집안에서 태어난 죽산 조봉암 선생은 일제시기 사회주의 항일운동을 했으나, 해방 후 대한민국에 참여했다.

1946년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한 그는 1948년 이승만 정부에서 제헌의원·초대 농림부장관이 되어 농지개혁과 농업협동조합운동을 전개했다. 또 1950년 제2대 국회의원에 재선되어 국회 부의장에 선출되었으며, 1952년 제2대 대통령에 출마하여 차점으로 낙선, 1956년 다시 제3대 대통령에 출마했으나 또 다시 낙선되었다. 그 해 진보당(進歩黨)을 창당, 위원장이 되어 정당활동을 하다가 1958년 간접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2심과 3심에서 각각 사형을 선고받은 뒤 이듬해 7월 재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사형이 집행됐다. 지난해 1월 20일 52년만에 대법원에서 간접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문의 : 새얼문화재단 ☎ 885-3613

청운대, 옛 인천대학교 자리에 새 동지 뜬다

청운대 제2캠퍼스의 인천 유치가 확정됐다. 송영길 시장과 이준호 해전학원 이사장은 지난 1월 19일 도화구역 내 토지 5만6천350㎡와 옛 인천대 본관 건물을 631억1천500만원에 청운대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조건은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청운대는 4월부터 대학 건물 리모델링 작업에 착수해 2013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며 학생 4천명이 도화캠퍼스에서 수업을 받게 된다.

문의 : 시 평가조정담당관실 ☎ 440-3313

인천, 손 안에서 즐긴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달부터 인천 관광명소 정보를 담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인천여행’ 서비스를 시작했다. ‘인천여행’은 차이나타운, 자유공원, 월미도, 종교 전래의 길 등 7개의 워킹투어 코스 정보와 교통·날씨·물때 정보 등 다양한 생활정보를 담고 있다. 또 여행종합정보 서비스를 통해 주변 맛집 검색, 지도보기, 전화걸기가 가능하도록 사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인천여행 앱은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의 : 인천도시공사 ☎ 260-5000

2014 인천AG 홈페이지, 앱어워드 대상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 웹사이트(www.incheon2014ag.org)가 ‘웹어워드 코리아 2012’ 공공프로모션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웹어워드 코리아 2012’는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지난해 국내에서 새로 구축하거나 개편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우수 웹사이트를 시상하는 행사다.

협회는 웹사이트에 선수들의 실사 이미지를 다양하게 배치하고 건의사항이나 대회추진의견, 이벤트센터, 메타블로그 등의 메뉴를 통해 방문객들의 참여를 유도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문의 :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 458-2181

담배 피면 과태료 낸다

우리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인천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 흡연율을 낮출 계획이다.

시는 우선 공원과 버스정류소 등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조례’를 이달 안으로 제정·공포할 계획이다. 시는 조례가 내달 시의회를 통과하면 게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조례는 인천대공원 등 31개 공원과 1천200개 버스 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또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경우 시중금리보다 0.5% 높은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적금 상품을 개발한다’는 방침 아래 농협 측과 협의 중이다.

문의 : 시 보건정책과 ☎ 440-2725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대폭 확충

우리는 자동차 관련 산업단지를 대폭 확충한다.

현재 남동공단·주안공단·부평공단에 운영 중인 자동차 모듈클러스터 8곳 외에 청라 인천하이테크파크(HP)·서부산업단지·검단산업단지에 전기자동차 부품과 부품 모듈화, IT융합기술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말 입주를 목표로 서구 원창동에 16만5㎡ 규모의 중고차 수출전용단지를 조성하고, 경인아라뱃길과 북항 인근에 각각 3만3천㎡와 22만㎡ 규모의 물류단지를 조성해 중고차 수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국내 최대 중고차 매매단지인 서구 엠파크를 중심으로 자동차용품 매매, 차량 수리 서비스 단지 조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시 경제수도추진본부 ☎ 440-4302

UNCITRAL 아태 사무소 인천 송도에 개소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 아시아·태평양사무소가 지난 1월 10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미추홀타워 17층에 문을 열었다.

UNCITRAL은 1966년 세계 각국 상거래 법의 조화와 통일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 산하 기구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와 함께 세계 양대 중재기구 중 하나다.

UNCITRAL은 40여 년간 국제상거래 개혁에 전문성을 둔 국제무역법 분야에서 유엔의 중심적인 법률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 60여 개국이 가입해 있고 우리나라는 2004년에 가입했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 440-325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전국 1위

우리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이하 BF)’ 인증 부문에서 전국 1위로 올라섰다. BF 인증제도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가 교통시설과 건축물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우리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으로 사용될 구월 웰카운티 3·4단지와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이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로부터 BF인증을 받았다. 이로 인해 인천지역 44개 시설물이 BF인증을 획득, 서울시를 제치고 전국 1위의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도시’에 올랐다.

시는 인천건축사회와 공동협약을 체결해 건축 설계단계부터 BF인증 시설물로 설계되도록 민·관이 협력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데 따른 성과로 보고 있다.

문의 : 시 재산관리과 ☎ 440-2654

부패방지시책 평가 '우수'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1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결과, 전년도보다 무려 12단계가 상승한 전국 4위의 ‘우수’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 유형별 등급이 3개 등급 이상 상승한 것이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반부패 인프라 구축, 기관장 관심도, 제도개선, 행동 강령 운영, 청렴교육 및 홍보, 반부패 수범사례 등 평가대상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 결과 전국 7위로 전년대비 7단계가 상승하고, 또 이번에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전국 4위로 전년대비 12단계가 상승한 것은 인천시의 청렴시책추진 노력이 성과를 나타낸 것 같다”고 말했다.

문의 : 시 감사관실 ☎ 440-3182

2014 인천AG,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 개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1월 5일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제4기 블로그 대학생기자단 ‘터치인(仁)’ 발대식을 열었다.

10명으로 구성된 4기 터치인은 2012 빅터코리아오픈 배드민턴대회 등 각종 국내 및 국제경기, 스포츠 유망 선수들을 취재하며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홍보하게 된다.

조직위는 기존 터치인의 활약에 힘입어 이날 현재 일일 블로그 방문자가 600명을 넘고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노출이 9만회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문의 :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458-2182

북항 배후부지, 첨단산업 융합단지로 바뀐다

인천 북항 배후지역이 LED·신재생 에너지 융합 단지로 뜬다. 우리시는 북항 배후지역 소유 한진중공업과 협력해 북항을 바이오·컴퓨터부품제조·LED·신재생 에너지 융합단지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중심지 및 항만배후부지의 특성을 활용한 국제 교역의 중심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북항 배후지역은 동북아의 새로운 중심 무역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송도·청라·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중심에 있는데다 인천국제공항과 제3연륙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의 광역교통망이 연결돼 입지조건이 최적이다.

문의 : 시 항만공항시설과 ☎440-4803

노인학대 1577-1389로 신고하세요

우리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2012년 노인학대신고 ☎1577-1389' 신고 전화번호 인지율을 기존 36%에서 50%로 높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중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결의대회를 추진, 시설 내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노인인권 선언문 채택 등 시설 내 노인인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SNS, 트위터팔로우),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학대 피해노인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Click ESC'를 구축, 전용상담 입소노인의 경제적 자립 및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인 홍보 및 지원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문의 : 시 노인정책과 ☎440-2823

국내 최대 지붕형 태양광발전소 인천항에 건립

국내 최대 규모의 지붕형(Rooftop) 태양광발전소가 인천내항에 건립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올해 핵심과제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녹색항만 조성'에 태양광발전소를 세우는 계획을 마련했다.

인천내항 1~3부두 임항창고 12곳(총면적 2만5천500㎡)의 옥상에 발전용량 2.9MW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붕형 고정식으로 설치, 태양전지를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추진형태는 수익성과 투자안정성을 고려해 공동투자자와 창고지붕 임대 방식, 공사비 전액투자 방식 중 하나로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 인천항만공사 ☎890-8000

경서택지지구 분양 마감 임박

인천 서구 요지에 위치한 경서택지지구가 침체된 수도권 부동산 경기에도 불구하고, 100% 분양 마감 초입기에 들어갔다.

경서지구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주경기장 및 연희생태공원, 골프장, 화훼단지 및 드림파크공원이 인접한 친환경 녹색주거단지로서, 생활편의시설(인천지하철 2호선) 확충으로 그 가치가 수직 상승 중이다.

검암, 청라, 연희 등 인근개발지구와 연계성이 양호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데다가, 북측 1.5km에는 인천공항철도 검암역 및 인천 국제공항고속도로 검암IC(개통예정) 등이 위치해 서울 및 인근지역으로의 접근성도 단연 돋보인다.

현재 경서지구는 그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잔여용지를 분양 중에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공사 홈페이지(www.idt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인천도시공사 ☎260-5662

중소기업이 살맛납니다

우리는 올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6천5백억원 규모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과 5백억원의 업종 구조고도화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정책자금을 1천억원 증액하여 인건 경제 성장을 이끌 기술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비전기업 육성과 신성장 동력산업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안정자금은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를 둔 업체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와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2.5~4%의 이자차액을 보전 받게 된다.

업종 구조고도화 자금은 자동화설비, 소기업육성, 공장시설확보, 기업연구시설치자금으로 10억원까지 지원되며, 2.5% 범위 내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문의 : 시 중소기업지원과 ☎440-4253

영종 하늘문화센터 3월 개관

영종 하늘문화센터가 오는 3월2일 개관한다. 중구 운서동 영종하늘도시에 건립된 하늘문화센터는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1만2천739㎡ 규모로, 수영장·체육관·보육시설·강당·강의시설 등을 갖췄다.

센터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수영·헬스·에어로빅·요가·탁구·농구교실·배드민턴 강습을, 문화복지 프로그램으로는 주부가요교실·어린이 창작미술·독서 글쓰기·청소년 기타교실을 준비하고 회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정식 개관에 앞서 2월15~28일에는 무료로 수영장과 헬스장을 개방한다.

문의 : 하늘문화센터 ☎745-6500

인천도시공사, 3년간 8천9백억 공사채 발행

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등 4개 핵심 사업의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8천9백여 억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공사채가 투입되는 사업은 검단신도시(4천9백여 억원), 구월보금자리주택(2천9백여 억원), 영종하늘도시(8백여 억원), 송도 5공구 주택건설(3백여 억원) 등이다. 이자율은 회사채(AA-) 기준금리 이내 상환기간은 5년 이내의 조건으로 올해부터 오는 2014년까지 연차별로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공사채 발행을 이달 안으로 시에 승인 신청할 방침이다.

문의 : 인천도시공사 ☎260-5000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 출산율 증가

우리시의 출생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2009년 말 기준 0세 등록인구는 2만3천390명이었지만 2010년 2만4천648명, 지난해 2만5천572명 등 매년 늘고 있다. 2009년과 2011년, 2년 사이에 0세 등록인구가 9.3% 늘어난 것이다. 또 2010년 통계청 자료에서도 인천의 합계출산율이 2009년 1.14명에서 2010년 1.21명으로 증가하는 등 출산율이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출산율이 증가한 것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우리시의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의 : 시 여성정책과 ☎440-2751

자살 예방 조례 제정

우리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인천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시는 민·관이 참여하는 자살예방위원회를 운영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예정이다. 또 자살 미수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완화하도록 전문기관의 상담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인천에서 자살한 사람은 전년도에 비해 3.8% 늘어난 875명으로, 6개 광역시 중 2위를 기록했다.

문의 : 시 보건정책과 ☎440-2722

지하철 공사현장 궁금하세요?

빙하시대의 얼음동굴인가? 반짝거리는 터널 모습이 낯설다.
 환한 불빛아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은 다름 아닌 인천지하철 공사현장이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한 2호선과 오는 10월 개통 예정인 서울7호선 연장선의 공사 현장을 개통 전에 시민에게 공개한다.

지하철 공사현장 방문은 올해 매분기 30명 내외로 실시할 계획으로, 시민들에게 공사시행 현황 등을 설명하고 방문 후 제시된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지하철 공사 시민방문단 신청 접수는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도시철도건설본부로 전화신청하면 된다.

문의 : 시 도시철도건설본부 ☎451-2752





인천-부산시의회 합동 워크숍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제주도에서 부산시의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와 합동으로 워크숍을 갖고 지방의회 발전발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워크숍에서는 최근 녹색교통으로 재인식되고 있는 신형 노면전차를 중심으로 한 '세계의 신교통 시스템'에 대해 인천시의회에서 발표했고, 부산시의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 창조적 도시재생'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주제발표 이후 이뤄진 간담회에서는 도시철도 무임손실 보전을 비롯해 도심재생특별법안, 도시정비기금의 국가 차원의 재원확보, 기간제 의원보좌관에 관한 토론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도시철도 무임 손실 보전에 대해서는 이미 2011년 5월 5대 인천시의회 교통분야 상임위원장들이 모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었고 이 문제는 향후에도 관련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시의회 사자성어 '발우일심'

2012년 인천시의회는 의정철학을 담은 사자성어로 '발우일심'을 선정했다. 사자성어 발우일심은 '모두가 한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뜻이다. 2012년에는 발우일심(發于一心)의 마음처럼 시민과 함께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배우고 연구하는 의회', '시정을 견제하는 의정',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을 모토로 인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한해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한구, 이도형 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영예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 이한구 의원과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위원이 지난 1월 18일 영등포 아트홀에서 개최된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과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우수 매니페스토 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6·2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제시한 광역의원 의정활동 계획서 중에서 공약실천(70점), 공약일치도(30점) 등의 지표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청렴선언 및 매니페스토 조례 제정 등 관련 활동 우수사례에 대해 수상했다. 특히, 이도형 시의원은 2010년 매니페스토 공약실천계획분야에서 최우수상에 이어 2011년도 매니페스토 공약실천 이행분야 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2회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청소용역 근로자, 청원경찰과 간담회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월 19일 민속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청소용역 근로자와 청원경찰 등 18명과 오찬을 함께 하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의회 청사 청소와 청사방호 등 음식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의회를 빛나게 하는 중요한 일을 수행하지만 평소에는 간과하게 되는 점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종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으며, 근무 환경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특히 소통의 부재로 인한 어려운 점과 상호 협조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클릭! 시의원 _ 허인환 의원

화수·만석부두 제2의 소래포구로



동구 제2선거구 허인환 의원(43)은 실천력을 겸비한 정책통이다. 일선 동사무소에서 주민의 복지를 책임졌었고, 국회의원 보좌관,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시민들의 힘든 점, 가려운 곳이 어디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안다. 허 의원 지난 8년간 국회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쌓은 내공을 시의원을 하면서 하나둘씩 펼치고 있다. 전국광역시 최초로 '하수처리수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요금징수 근거 조례를 만들었고, 만석부두, 화수부두를 어항구로 지정, 어민들의 소득증대의 길을 텃다. 인천의 구도심 중 가장 열악한 곳 중 하나인 만석·화석부두는 자연자원인 바다를 활용해야 지역과 어민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허 의원은 동인천역 재생사업의 방향을 주민이 원하는 개발방식을 채택할 수 있게 물꼬를 텃다. 33만 여㎡가 넘는 동인천역 재생사업 지구를 6개의 섹터로 나눠 관 주도의 일방적인 개발이 아닌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동구의 갯이부리마을을 '마을 만들기 사업 1호'로 만든 것도 성과를 꼽았다. 쪽방촌으로 유명한 갯이부리마을을 토착민 100%가 재정착할 수 있게 대단위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닌 16㎡에서 33㎡에 이르는 작은 주택 60세대를 지어 지역민이 정착하고 문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진행했다. 허의원은 시의원으로 활동하다 보니 정책도 만들고, 지역구 활동도 해야 하며, 의회활동 등 혼자해야 할 일이 많으며 보좌관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혼자서 모든 일을 다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것. 허 의원은 동구에 문화자원이 부족한 것이 늘 안타깝다. 그래서 구도심의 지역 문화를 살리고자 노력한다. 어항의 정서가 살아있는 동구를 살려 화수, 만석부두를 제2의 소래포구로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를 펼쳐 보인다.



2012 신년인사회

인천시의회는 임진년 새해를 맞아 송영길시장과 시 간부 공무원, 이종원 부교육감과 공사·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신년 인사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류수용 의장은 지난해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그 동안 6대 의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가장 우선시하며 그동안 의정활동의 중심이 되었던 의사당에서의 정치를 탈피하고 현장정치 구현을 위해 의원들이 직접 발로 뛰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들어 시 정부에 대안을 제시했다고 자평했다.



계양산에서 신년다짐

인천시의회는 지난 1월 7일(토)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의 화합·소통을 통해 의정활동에 원활히 하고, 지방자치 발전 및 시민섬김 복지도시를 구현하고자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계양산으로 산행을 실시했다. 류수용 의장은 산행에서 우리 인천은 지리적 역사적으로 부흥발전할 수 밖에 없으며, 최근 인천의 산적인 현안사항이 하나하나 해결되기를 보면서 인천의 미래가 밝다고 말했다.

친환경 무상급식특위 회의

인천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2012년 운영계획 의결의 건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필드 위에 꽃핀 우정

글. 정경숙_본지편집위원 사진. 하장원_시 대변인실



동북아 미래를 짊어질 꿈나무들이 스포츠를 매개로 아시아의 평화와 우의를 다진다. ‘2012 인천평화컵 국제유소년축구대회’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중국 윈난성(云南省) 쿤밍(昆明)시에서 열린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인천유나이티드 FC가 주최하고 윈난성 축구협회가 주관하며 한국·북한·일본·중국의 선수와 임원 200여 명이 참가한다. 인천에서는 인천유나이티드FC U-14팀이, 북한에서는 4·25 축구단의 U-14팀이 출전한다.

대회 개막식에는 송영길 시장을 비롯해 각국 축구관계자 및 선수, 남북체육교류협회임원 등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이들 참석자들은 ‘인천평화컵 국제유소년축구대회가 승부를 떠나 스포츠 교류 평화를 이루고 화합하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송 시장도 이날 선수와 임원 및 대회 관계자들을 찾아 격려의 말을 전했다. 그리고 ‘인천을 국제스포츠와 남북스포츠 교류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남북화해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송영길 시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의 방문기간 중 중국 운남성과 우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체육을 시작으로 문화예술, 관광, 경제사회 등 다방면으로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다. 필드 위에서 피어난 두 도시의 우정이 훗날 동북아를 빛내는 값진 결실로 꽃피길 바란다.



‘인천의 아들’ 인천 위해 뛰다

글. 정경숙_본지편집위원 사진. 인천유나이티드 FC

2003년 창단한 K리그의 대표적인 시민구단 인천유나이티드 FC가 날개를 달았다. 2002 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설기현과 김남일을 영입하면서 K리그 돌풍을 예고한 것이다.

“인천유나이티드가 명문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김남일).”

“허정무 감독님과 함께해서 기대가 크다.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설기현).”

김남일과 설기현은 지난 1월 24일 인천시청에서 입단식을 갖고 인천유나이티드 FC를 K리그 명문팀으로 올려놓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김남일은 ‘인천의 아들’이기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인천에서 태어나 축구명문고인 부평고를 졸업한 김남일은 2000년 프로 데뷔 해, 월드컵 3회 연속 진출에 빛나는 축구스타로



INCHEON UNITED F.C.

거듭났다. 그리고 10년의 기다림 끝에 인천의 품으로 돌아왔다. 김남일은 허정무 감독과의 인연과 가족의 설득으로 오랜 해외 선수생활을 청산하고 국내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리그 13위에 그쳤던 인천유나이티드 FC는 김남일과 설기현을 동시에 영입하면서 전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인천유나이티드 FC 허정무 감독도 “우리 팀에 젊은 선수들이 많은 데 두 선수가 가세해 선배로서의 경험을 많이 전해주으면 한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어느때보다 강력한 엔진을 단 인천유나이티드FC는 지금, 올 시즌 우승을 향한 담금질이 한창이다. 인천 시민의 열렬한 환호 속에 K리그의 새로운 강자로 그라운드를 누비는 날이 멀지 않았다.

생활정보

미추홀도서관 문화행사

미추홀도서관이 2월 문화행사를 연다. 관심있는 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원화전시회

- 일시 : 2월 2일(목)~29일(수)
- 장소 : 미추홀도서관 1층 로비
- 대상 : 전체
- 작품 : ‘모기와 황소’ 외 원화 16점

●미추홀도서관 특강 ‘공정무역? 착한소비?’

- 일시 : 2월 7일(화) 14:00~16:00
- 장소 : 미추홀도서관 3층 세미나실1
- 대상 : 성인 30명
- 내용 : 공정무역의 의미, 필요성, 사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등
- 강사 : 경제수도추진본부 투자유치담당관 백현
- 접수 : 방문, 인터넷, ☎ 440-6663

●2012 인천예술고등학교 소묘과제전 ‘우리 그리고 나’

- 일시 : 1월 26일(목)~2월 19일(일)
- 장소 : 미추홀도서관 1층 미추홀터 갤러리
- 대상 : 전체
- 작품 : ‘머릿 속 장바구니’ 외 51점
- 문의 : 440-6662~5

힐리언스 부부캠프 VIP 초대

‘갈등 없는 부부보다 갈등 뛰어넘는 부부가 더 행복하다’. 국내 최초 부부강사의 25년 부부교육 노하우를 담은 감동의 ‘부부행복학교’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 일정 : 2월 24일(금)~25일(토), 1박2일
- 대상 : 부부 20쌍(선착순)
- 프로그램 : 부부갈등, 남녀의 차이, 성격 차이, 건전한 재무설계, 성, 부부상담, 요가
- 강사소개 : 두상달 김영숙 부부강사, 홍광수 박사, 양재중 실장
- 주최주관 : (사)가정문화원, (주)힐리언스
- 장소 : 힐리언스 선마을(강원도 홍천)
- 참가비 : 54만원(부부한쌍)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201-317728
- 문의 : 02)561-7942

문학유스센터 이름을 지어주세요

문학유스센터는 문학경기장 내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이다. 청소년 수다공방, 청소년 자유허문대, 청소년 파티방, 청소년 활동 연습실 등 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준비하기 위해 센터명을 공모한다.

- 접수기간 : 1월 17일 ~ 2월 21일, 18시까지
- 참가자격 : 인천지역내 거주 청소년(9~24세)
- 심사방법 : 문학유스센터 및 인천시청 아동청소년 담당자 내부심사
- 접수방법 : imyc@hanmail.net
- 문 의 : 437-1318, 429-1318

지역맞춤형 인재를 양성합니다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분권형 고용·인적자원개발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지역 간 노동시장 불균형을 해소를 위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을 연다.

- 사업기간 : 1월 ~ 12월 / 12개월간
- 과 정 명 : 바이오 품질관리원 양성과정 등 8개 과정
- 훈련인원 : 187명(취업목표 120명)
- 훈련특전 : 수료생에게 교통비 지급 및 취업알선(100%)
- 문의 : 469-1251

순서	교육훈련명	교육일정	교육인원	모집비율
1	금형설계 AUTO CAD 전문가 양성	42 ~ 627	20	여성70%남성 30%
2	중소기업 회계사무원 양성	3.5 ~ 5.30	24	여성 100%
3	중소기업 무역실무자 양성	3.16 ~ 5.23	24	여성70%남성 30%
4	중소기업 품질관리 담당자 양성	3.26 ~ 5.2	40	여성70%남성 30%
5	중소기업 관세사무원 양성	5.7 ~ 7.17	24	여성 100%
6	CNC선반 기능인력 양성	6월 중	20	여성70%남성 30%
7	바이오 품질관리원 양성	4월 중	20	여성70%남성 30%
8	PCB설계자 양성	6월 중	15	여성70%남성 30%
	계		187	

※ 단, 훈련의 특성을 고려, 남성훈련생 모집비율을 교육인원의 30% 이내로 하되 여성을 우선으로 하여 모집함.

전국체육대회 상징물 공모

2013년 10월 중 제93회 전국체육대회가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인천 시에서 개최된다. 285만 인천시민과 온 국민이 화합하고 참여하는 축제 분위기와 성공적인 체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회 상징물 대회마크, 마스코트, 포스터, 구호 등을 공모한다.

- 기간 : 2011년 12월 20일~2012년 2월 20일
- 공무대상 : 대회엠블럼 1점, 포스터 1점, 구호 1점, 표어 5점
- 응모자격 : 제한없음(단 부문별 1인당 2장씩을 초과할 수 없음)
- 문의 : 440-4107

율목도서관 특별 프로그램

율목도서관은 2012년을 맞아 신년기획 프로그램을 연다. 소설을 통해 본 인천의 다양한 모습과 스토리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다.

●특별기획 프로그램

- 제목 : 2012년 특별기획 프로그램 ‘인천, 소설로 읽다’

2월 2일	자본·노동	강경애 〈인간문제〉 VS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2월 9일	중앙·주변	김한수 〈양철지붕 위에 사는 새〉 VS 박만규 〈섬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2월 16일	지역·연대	조혁신 〈뒤집기 한판〉 VS 김중미 〈괘이부리말 아이들〉

- 일시 : 2월 2일~16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장소 : 율목도서관 본관 2층 소극장
- 대상 : 청소년 이상 지역주민 누구나
- 주관 : 율목도서관, 플레이캠퍼스
- 문의 : 770-3800, 3804

●상시 프로그램

- 제목 : 그림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이야기 보따리 술술!’
- 2월 주제 : 외국의 문화
- 일시 : 매주 화, 목요일 오후 4시
- 장소 : 율목도서관 별관 1층
- 대상 : 영유아 및 어린이, 가족이용자

●율목도서관 2월 영화상영

- 제목 : 2월 율목시네마
- 2월 주제 : ‘소중한 환경, 우리가 지켜요!’
- 일시 :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2시
- 장소 : 율목도서관 본관 2층 소극장

일시	영화제목	이용등급	상영시간	장르
2월 11일	게드전기	전체관람가	115분	애니메이션, 코미디
2월 12일	버림위의 포뇨	전체관람가	100분	애니메이션, 코미디
2월 18일	아이스 에이지2	전체관람가	90분	애니메이션, 코미디
2월 19일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	전체관람가	119분	애니메이션, 판타지
2월 25일	노잉	12세 관람가	121분	드라마,스릴러
2월 26일	투모로우	12세 관람가	123분	액션, 스릴러

- 문의 : 770-3800

‘플랫폼 아티스트’ 전

인천아트플랫폼은 2기 입주자들의 창작활동을 마무리하는 결과보고전 ‘플랫폼아티스트’ 전시를 열고 있다. 여의주를 품고 승천하는 2012년 용의해에 플랫폼 아티스트들이 뽐어내는 뜨거운 창작품의 적극적인 관람을 부탁드린다.

- 전시기간 : 1월 9일~2월 26일
 - 오전 10시~17시(평일, 주말)
 - 매주 월요일 휴관, 관람시간 30분 전까지 입장바람
- 장소 : 인천아트플랫폼 A동, B동, C동, H동 외
- 문의 : 760-1000

3·1절 기념식 가족과 함께 참여하기

우리는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건설하기 위해 동심동력으로 힘차게 출발했다. 오는 3월 1일 아흔 세 번째 맞는 삼일절을 맞이하여 시민여러분을 모시고 기념식과 경축콘서트를 연다. 관심있는 시민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 일시 : 3월 1일 10시
- 장소 :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행사내용
 - 1부) 국민의례, 독립선언문 낭독, 포상, 기념사, 3·1절 노래자랑 및 만세삼창
 - 2부) 경축콘서트(시립교향악단)
- 참여자 특전
 - 지정구역 우선입장
 - 초중고교 학생 자원봉사 기회부여
- 인터넷 참여접수 : 선착순 1천명
- 문의 : 440-2216

집단 심리검사 안내

우리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새 학기를 맞는 학생들의 심리검사를 통해 자신의 성격, 적성, 학습전략에 대한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원만한 대인관계, 합리적 진로결정, 학습방법 전략을 돕는다. 새학기를 준비하는 청소년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

- 검사 실시일
 - 1차 – 2월 11일(토)
 - 2차 – 2월 25일(토) 오후 2:00 ~ 3:00
- 해석 실시일 : 상담자 배정 후 개별 연락, 일정 논의 후 해석상담 진행
- 장소 : 인천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4층 교육연수실
- 대상 : 초등 5년 ~ 고3
- 내용
 - 성격유형검사(MBTI, MMTIC) : 5천원

성격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또래관계나 부모-자녀관계에 도움
 - 학습검사(MLST학습전략검사) : 5천원

학습과 관련된 행동패턴을 탐색하고 학습을 방해하는 심리적인 요인이나 학습 습관 탐색
 - 진로검사 (진로발달, 진로탐색검사) : 5천원

자신이 흥미를 갖는 적성에 대해 알 수 있고 그에 맞는 직업 영역에 대해 탐색
-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 검사 당일 수급자 증명서 (증명 가능한 서류)를 제출
- ※ 전화신청 후 검사비를 입금해 주시면 예약 완료
- ※ 계좌번호 : 국민 653601-01-351179 인천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 ※ 취소에 따른 환불 규정 안내 : 당일 취소(환불 불가), 전날 5시 이전 취소 (50% 환불), 2일 전 취소(전액 환불)

- 문의 : 721-2314

청운대학교 산업체 위탁대학(아간) 학생모집

청운대학교는 산업체 위탁대학(아간) 학생을 모집한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지원을 바란다.

- 모집기간 : 선착순 마감
- 위탁교육과정 및 학과별 모집정원

모집학과	모집학년	학생정원
경영학과	1학년(신입)	25
	3학년(편입)	25
건축공학과	3학년(편입)	25
건축설비소방학과	3학년(편입)	20

- 지원자격
 - 신입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자(졸업예정자 포함)
 - 편입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 신 · 편입 모두 현재 산업체 근무 중인 자
 경우 그 단체나 조합명의로 지원가능
- 제출서류
 - 공통사항 : 위탁교육계약서 2부, 재직증명서 재직사실 확인서류 [4대(연금,의료,산재,고용)보험 중 관리공단이 발급한 증명서 택일]
 - 신입학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편입학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입학 및 등록금
 - 등록금 : 학기당 260만원
 - 입학금 : 30만원
 - 장학금 : 성적우수, 가족학생, 학교기여, 국가유공자 장학금
- 문의 : 571-4185

지방세 납부가 편리해져요

2012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납부가 편리해진다.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낼 수 있다.

- 고지서 : 챙기기 힘든 고지서는 이젠 안녕. 고지서 없이도 납부
⇒ 통장 또는 카드만 있으면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 입출금기에서 조회 · 납부 가능
- 소재지에서만이 아닌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은행에서 지방세를 납부
- 모든 카드로 쉽게
⇒ 카드사 관계 없이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29자리 납세번호에 주민번호까지 입력해 인터넷 납부도 더욱 쉽고 간편하게
⇒ 번거롭고 입력하지 않고 한눈에 내역을 보면서 간편하게 납부
-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도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 인터넷 뿐만 아니라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도 모든 신용 카드로 편리하게 납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welax.go.kr 참조

제43기 봄학기 수강생 모집

미추홀문화회관은 다가 올 따뜻한 봄을 기운차게 맞고자 43기 봄학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부담 없고 알차게 즐길 수 있는 '무료특별기획강좌'는 물론 실속있는 1일 무료강좌와 오전에 다양한 강좌를 개설했다.

- 강좌기간 : 3월 2일~5월 24일 (3개월) *개강 후 중도수강 가능
- 접수기간 : 1월 30일~3월 3일
- 장소 : 미추홀문화회관-(구) 인천여고
- 대상 : 영 · 유아, 어린이, 청소년, 주부, 일반인, 직장인
- 문의 : 765-0220, 0250, 홈페이지 www.mchart.co.kr

●문화시민을 위한 무료 강좌 (3개월 과정)

어린이	신나는 요들동요	요들전문강사 박명옥
	어린이발리댄스	어린이발리댄스전문강사 김미림
	어린이 한자교실 초급반	한자자격검정 전문강사 최종영
성인	서예초급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최중영
	주부 연극 & 뮤지컬	인천시립대 연기예술학과 강사 임기원
	몸매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성인발레	발레전문강사 이소연
	드로잉 기초부터 완성	서양화가 라선
	수필창작과 문학의 이해	인천대 객원교수 김준기
	디카! 필카! 사진 촬영	인천사진협회장 조만년
	일어 회화	금빛평생교육자원봉사 신혜숙
	한국무용	금빛평생교육자원봉사 박영숙
	민요	사.한국국악협회인천지회 민요보과위원장 박복임
	슬림미즈발리댄스	발리댄스 전문강사 공병순
	꽃꽂이	플로리스트 신송자
	성인영어회화 초급반	영어회화전문강사 김나연
	주부복싱다이어트교실	우송대 태권도학과 강사역임 김채원
	고운소리, 직장인성악교실	성악가 조외숙

- 신나고 활기찬 야외수업
 - 강좌명 : 어린이 골프교실
 - 대상 : 초등학교생 이상
 - 레슨비 : 3개월 15만원
 - 일시 : 화, 목, 토(주3회) 08:00~21:00사이 개별레슨
 - 문의 : 765-0250

●알짜배기 1일 무료 실속특강

일시	강좌	비고
5/2(수) 11:30~13:00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은 가정의 달 상품권 봉투 만들기	재료비 8천원
3/14(수) 18:30~19:20	셀프 네일아트 도전! 마블링&그라데이션 기법 배우기	솜, 아세톤, 매니큐어3~4가지색
5/3(목) 14:00~16:00	어버이날 웰빙 단호박케익 만들어 선물하기	재료비 1만2천원
3/2(금) 13:00~14:20	우드베닝으로 웰컴문패 만들어 봄맞이 집안 꾸미기	재료비 1만원
3/7(수) 10:00~11:30	우리아이 신인생 새출발을 위한 보타이와 머리띠 만들기	재료비 1만원
3/3(토) 10:00~11:20 3/8(목) 17:00~18:20 3/8(목) 18:40~20:00	우리집 식탁의 분위기를 UP ! 봄맞이 러너 만들기	재료비 1만2천원
2/17(금) 8:00~18:50 2/17(금) 9:00~19:50 2/17(금) 20:00~20:50	예쁜 손글씨 POP 맛보기~ 나만의 글씨체, 나만의 방문패 만들기 *가족, 친구, 동료 누구나 가능합니다.	
3/5(월) 10:30~12:00	퀵트로 머스트해브 아이템 쇼퍼백 만들기	재료비 5만원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생 모집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학생을 모집한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지원을 바란다.

-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 1월 30일(월)~2월 22일(수)
- 개강일 : 3월 5일(월)
- 인터넷접수(cecu.i.ac.kr)및 방문접수
- 교육장소
 - 제물포캠퍼스 : 남구 석정로 165(도화동) 성지관 1층
 - 강화캠퍼스 :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175-15번지 청담빌딩 3층
- 특전
 - 평생교육과정 : 전 과정기간(90시간)의 2/3 이상 출석한 경우
 - 인천대학교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및 관리자자격증 시험 응시자격 부여
 - 학점은행제 : 총 140학점 중 인천시민대학에서 84학점 이상 105학점 이내를 취득한 경우 '인천대학교 총장'명의 학사학위증 수여

※ 총장명의 학위증 수여전공 : 사회복지학, 체육학
- 문의 : 제물포캠퍼스 : 835-9563~6
 강화 캠퍼스 : 932-1391

‘에너지 과소비’ 모바일로 신고하세요

겨울철 전력부족 위기 시민 여러분의 참여로 극복하자. 에너지 과소비를 줄이면 환경도 보호하고, 외화 낭비도 줄일 수 있다.

- 주요신고 대상
 - 오후 5~7시 사이에 네온사인 간판을 켜고 있는 경우
 - 오후 7시 이후 상가 1개소에서 2개 이상의 네온사인 간판을 켜고 있는 경우
 - 빌딩 등 대형건물의 실내온도가 20℃ 이상이거나 공공기관이 18℃ 이상

※ 신고기간 : 1월 2일~2월 29일(2개월간)

- 휴대폰 문자메시지 신고
시 · 군 · 구별 전용 신고번호(# 1110-△△△△)로 위반 건물의 사진과 함께 위반내용 신고

- 스마트폰 신고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앱(app)으로 신고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를 만나는 방법
 - 아이폰 : AppStore 또는 iTunes
 - 안드로이드폰 : 안드로이드 Market 및 통신사별 AppStore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행사

우리 고유의 민속명절인正月대보름날 조상의 얼과 슬기가 담긴 민속축제를 통해 세시풍속의 의미를 되새기고,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보자.

- 행사개요
 - 일시 : 2월 6일(월) 11:00~19:00
 - 장소 : 인천도호부청사(남구 문학동 소재)
 - 내용 : 전통공연, 민속놀이경연대회 및 체험

구분		내용
공연	강화농악	• 퓨전난타,비나리,국악관현악
	중요무형문화재 김금화의 대감놀이	• 범패와나비춤(시무형문화재제10-나호)
의식행사	대회결승전 및 시상	• 지산발기
	달집고사(서해안배연신굿및대동굿)	• 내빈소개(사정,시정,국회의원 구창장 등)
민속체험	대회	• 뭇놀이 대회
	투호대회	• 제기차기대회
	문화	• 족자만들기 / 고추장만들기 / 경단만들기 / 12지간초콜릿만들기
	놀이	• 무료기훈씨주기 / 전통의상체험 / 토정비결 / 고무마 굿기
무형문화재 체험	부림깨물기 / 강정 만들기 / 액막이 연날리기 / 가래떡굽기	달집태우기 / 추억의 뱃지만들기
	달집태우기 / 추억의 뱃지만들기	
무형문화재 체험	은술털출 탈그리기 체험	
	규방다례 차시움	
부대행사		• 먹거리 장터, 경품추첨

- 주관 : (사)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 보존회
- 문의 : 440-4033

둘째 이후 출산 장려금 지원

우리는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째 이후 출산 또는 입양자녀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 : 2012년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둘째 이후 자녀
- 지원금액 :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이후 자녀 300만원
- 지원신청 : 거주지 읍 ·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분증, 거래통장사본, 출생신고후 60일 이내에 신청
- 지원자격 : 출생 · 입양일 기준 인천시 1년 이상 거주자(주민등록자)
 - 거주기간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지원신청서 제출)
- 문의 : 시 여성정책과 출산장려팀 440-2752

이달의 서평



1만 페이지의 독서력

윤성화 | 한스미디어 | 2011

‘1만 페이지 독서력’은 ‘1만 시간의 법칙’처럼 누적되는 시간의 힘을, 책 읽기와 융합한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1만 페이지 독서력’으로 책을 꾸준히 읽을 수 있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1년에 1만 페이지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과 경제, 인문, 자기계발 등 다양한 분야를 접하며 독서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또한 마지막 장에는 ‘꼭 읽어야 할 책들’을 추천하여 정리해 담았다. 독자들이 어떤 책을 봐야 할지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자기만의 방

정민우 | 이매진 | 2011

고시원과 원룸텔, 옥탑방과 반 지하를 오가는 ‘집 없는 세대’의 집 이야기
이 책은 저자의 경험과 이야기를 통해 집에 관한 열망과 불안이 얼마나 우리의 삶 곳곳에 배어 있는지 드러내고 있다. 경제 위기 이후 한국 사회 전반에 일어난 여러 변화들이 어떻게 청년들의 공간적 삶을 새롭게 구조화하는지, 또 청년들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나름의 방식으로 대응하는지를 살펴본다.



오늘의 클래식

김성현 | 아트박스 | 2011

그동안 모차르트, 베토벤 등으로 대표되는 정통 클래식에 갇혀 있던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우리 시대에 어울리는 현대 클래식 음악을 소개한다. 20세기에 걸쳐 방대한 작품을 남긴 작곡가들 가운데 40명을 추려 그들의 음악과 일생을 함께 읊어간다.
스트라빈스키가 포함된 러시아부터 진은숙이 포함된 아시아까지, 지역적인 구분에 따라 모두 14장으로 나누었다. 현대 음악사를 따라가다 보면, 20세기 음악의 역사와 현대사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을 달린다

이상권 | 자음과모음 | 2011

아동청소년문학을 대표하는 중견작가이자 생태문학 작가로 꼽히는 이상권의 소설. 작가의 생태적인 관점이 잘 녹아 있는 작품으로, 새들을 통해 생태계의 삶과 투쟁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암컷 딱새 ‘하늘눈’이 수컷을 만나 함께 동지를 틀고 위협적인 침입자로부터 새끼를 지키고자 하는 모습을 통해 생태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또 딱새 외에도 멧새, 오목눈이, 할미새, 박새 등 다양한 새들이 동지를 짓고 새끼를 낳아 기르는 모습을 그리며, 새들 각각의 특성을 세밀하게 묘사한다.



주제별 추천도서

자료제공 인천시 미추홀도서관 440-6655

서명	지은이	출판사	책 소개
1만 페이지의 독서력	윤성화	한스미디어	하루 27페이지가 만드는 기적 같은 변화
명랑철학	이수영	동녘	니체와 함께 명랑하고 유쾌한 삶을 만나다!
아이디어맨	폴 앨런	자음과모음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열정적인 한 인간의 이야기
자기만의 방	정민우	이매진	고시원으로 보는 청년 세대와 주거의 사회학
우리는 왜 국단에 끌리는가	캐스R 스타인	프리뷰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빠져드는 집단사고의 위험성!
별에는 밤, 천문우주 실험실	김지현·김동훈	에버아웃북	별 하나에 낭만 별 하나에 과학
오늘의 클래식	김성현	아트박스	스트라빈스키부터 진은숙까지 현대 작곡가 40인 열전
사랑하는 글쓰기	최종규	호미	잘못 쓰는 겁말 이야기
하늘을 달린다	이상권	자음과모음	삶의 의자가 담긴 새들의 힘찬 날갯짓!
평생갈 내사람을 남겨라	이주형	비즈니스북스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인간관계를 맺는 법
인류의 위대한 여행	앨리스 로버츠	책과함께	현생인류의 탄생과 발자취에 관한 이야기!
한국근대의 풍경	이강래	푸른나무	미완의 근대사가 마침내 위대한 드라마로 재탄생하다!

이달의 인천 향토작가

시인 주광일

현대 시조시인, 인천 출생. 호는 소안(素眼)

1955년 <동아일보> 창간 35주년 현상문예에 시조 <핏 자욱>이 당선되었다. 이후 많은 작품을 발표, <사생도(死生圖)> · <청자(靑瓷)>(1960), <종목 송가(樅木頌歌)> · <술개>(1964), <나의 묘지명(墓誌銘)>(1972) 등 대표작을 내놓았다. 이밖에 <혹한(酷寒)>(1956), <산수(山水)마저>(1960), <갈매기도 사라졌는데>(1972) 등 다수의 작품이 있다.

1960년 인천시문화상, 1964년 경기도문화상을 수상했다. 한때 국제보도 편집장을 지낸 뒤 경인일보 편집국장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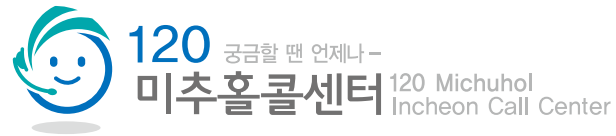
소중한 일자리, 행복한 일자리

본 정보는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의 구인자료로, 조기에 채용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자는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 ☎ 458-7488, 74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명	모집직종	인원	경력조건	학력	업무능력	근무지(주소)	임금액
태왕 주식회사	트레일러트럭운전원	2명	경력	학력무관	추레라기사모집	중구 사동 9-1	월급 200만원
(주)디브이알씨앤씨	자재관리사무원 (전자,컴퓨터)	1명	경력	대졸(2~3년) ~대졸(4년)	제품관리 및 무역업무	부평구 청천동 440-4 남광센트레스 제7층 720호	연봉 2,400만원
성보공업(주)	기계제품생산 관련 관리자	1명	신입	대졸(4년)	금속,기계제품(QA) 관리직 채용 공고-성보공업	서구 가좌동 570-7	연봉 2,500만원
김해테크	자재 관련 관리자	1명	경력	학력무관	관리	서구 가좌동 570-3	연봉 2,400만원
(주)한별스틸	기타 특수차 운전원 (견인차, 청소차 등)	1명	경력	학력무관	집계차 기사 모집	남동구 고잔동 365-1	월급 250만원
(주)써킷트라인	품질관리원 (품질관리사무원)	1명	경력	고졸~대졸 (4년)	FPCB,PCB 품질관리 구인	서구 가좌1동 173-102	연봉 2,400만원
대동산전	전기,전자 시험원	2명	신입	학력무관	전기 관련 품질관리업무	남동구 고잔동 729-2번지 남동공단 159블럭 3롯데	연봉 3,000만원
인천신용보증재단	금융 관련 사무원	2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2012년 정규직 신입 직원 채용	남동구 고잔동 636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9층	연봉 3,000만원
뉴웨이코리아	경영지원 관리자	1명	경력	대졸(2~3년) ~박사	경영지도 및 기업관리자를 채용합니다. (여성우대)	중구 내동 212-22 번지 2층201호	연봉 3,000만원
(주)신영	무역사무원 (관세사무원 포함)	1명	경력	대졸(2~3년) ~대졸(4년)	무역부 대리급 구인- 무역업무와 플라스틱 캡 제품개발	계양구 효성동 514-8	연봉 2,800만원
(주)제이영실업	지게차운전원 ,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4명	관계없음	고졸	지게차 기사, 하역상차 사원채용	중구 신흥동3가 7-121	연봉 2,800만원
서일ENG	배송 및 납품 운전원	1명	경력	학력무관	납품 및 영업사원모집(1톤)	남동구 고잔동 725-5 152블럭 5롯데	연봉 2,500만원
대아기계(주)	기술영업직 자동차엔진 조립라인 및 LCD조립 라인-5년 이상 경력자	2명	경력	학력무관	산업용기계장비기술영업원	서구 가좌1동 564-16	연봉 3,000만원
(주)대림테크	생산관리기술자	1명	경력	대졸(2~3년) ~대졸(4년)	생산관리원	서구 가좌동 480-9	연봉 2,400만원
에스제이건설(주)	건설 관련 관리자	2명	경력	대졸(2~3년) ~대졸(4년)	토목기술영업	남동구 구월1동 1133-12 한빛빌딩 5층	월급 200만원
세진테크(주)	자재관리사무원	1명	경력	대졸(2~3년)	생산관리/ CAD도면작업가능자 모집	남동구 고잔동 696-4 남동공단 129블럭 5롯데	월급 220만원
주연금속	물품이동장비조작원	2명	경력	학력무관	집계차 운전기사 [급구]	서구 금곡동 336-11	월급 233만원
(주)영웅종합건설	건설 관련 관리자	1명	경력	학력무관	건설회사 공무부 직원 모집합니다 (본사)	남동구 구월동 1449, 케이티앤지빌딩 4층 405호	연봉 3,000만원
한국소재(주)	무역영업원 및 해외영업원(영어)	2명	경력	대졸(2~3년) ~대졸(4년)	해외영업	남동구 남촌동 626-9 남동공단 38B/10L	연봉 2,500만원
금강산업열처리	영업부 채용 공고	1명	경력	학력무관	일반영업원	남동구 남촌동 609-13 남동공단 32블럭13롯데	연봉 2,500만원

☞ 인천시에서는 시민의 구인·구직을 돕기 위해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458-7470 ~ 7479, 7488, 7494(인천지하철 간석오거리역 5번출구 50M 전방)



‘인천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65일 24시간 시민의 궁금증과 민원을 해결해 주는 ‘인천시 미추홀콜센터’가 있습니다

※ 다음은 미추홀콜센터에서 시민과 소통한 실제사례입니다.



Q 경인고속도로 막히나요? 6시에 나갈건데요. _ 교통상담

A 문의 주신 시간 기준으로 확인 시 양방향 전 구간에서 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교통상황은 실시간으로 바뀌므로 출발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문의 하시면 신속, 정확하게 교통상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Q 영종도에서 월미도까지 배를 타고 갈 수 있나요? 시간, 요금, 승차 위치 등을 알 수 있을까요. _ 교통상담

A 영종도에서 월미도까지 배편으로 이동할 수 있고, 요금은 편도 3천원입니다.
또 대략 1시간 정도 걸리며, 영종도선착장에서 탑승하면 됩니다.

Q 지금 신현동에 문을 연 약국이 있나요? _ 생활정보

A 지금 신현동에 00약국(000-0000)이 금일 영업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화로 다시 한번 확인한 후 방문하세요.

Q 이번 주에 인천에 눈이 올까요? _ 생활정보

A 기상청홈페이지 검색결과 내일 18시 이후로 눈이 올 확률이 있으며,
적설량은 1cm미만으로 확인됩니다.

Q 인천시립승화원, 주말에는 몇 시까지 납골당을 방문할 수 있나요? _ 사회복지

A 주말, 승화원 방문시간은 08:00~18:00시까지 입니다.

상담분야 : 시정, 교통, 생활, 관광, 법률 문의 등

이용방법 : 전화 상담 120(문자상담 032-120), 외국어 상담(영어, 일어, 중국어), 수화 상담 070-7947-9005,
멀티미디어 상담 스마트폰 앱 · 트위터(@120incheon) · 팩스 상담(032-440-0400),
상담예약 홈페이지(120.incheon.go.kr),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

궁금할 땐 언제나, 미추홀콜센터 120! **상담시간 : 365일 24시간**



영웅들과 함께 도원결의

중구 차이나타운 삼국지 벽화거리에 갔을 때 남긴 추억 한 컷입니다. 삼국지 이야기를 벽화에 풀어놓아 인상 깊었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 세 영웅 틈에 끼어 도원결의하는 모습인데, 어때요. 그럴 듯하지 않나요?

_ 김정수 부평구 안남로12번길

그리운 얼굴



녹차 잎 넣은 우윳빛 찻잔 속에
맑은 물 따르니
녹차 잎이 동그라미 그린다.

잠시 후, 물 위에 떠오르는 건
내 고향 인천, 그리운 옛 친구들...

애틀한 향수에 젖어
살포시 웃음을 머금는다.

인천 그리운 내 고향
꿈엔들 잊을 수 있을까.
아름다운 내 고향이여...

_ 박선경 서울 동대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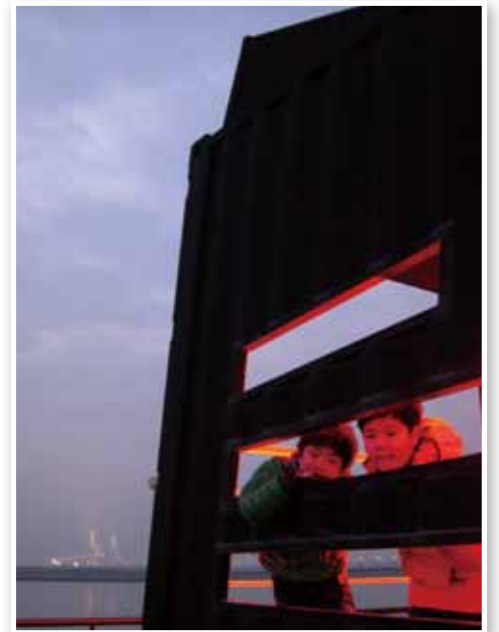
칭찬합니다



송의동 마당발 임점순 통장님

통장님은 두 아이의 엄마로 평범한 가정주부이지만,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돕고 있습니다. 밀반찬을 손수 만들어 소외된 이웃에게 전하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 목욕시켜드리고, 환자들을 위해 독서도우미를 자처하는 등, 좋은 일을 하도 많이 해서 헤아리기도 어렵네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시장님과 구청장님으로부터 받은 봉사상도 수두룩합니다. 어느 날 통장님에게 봉사활동이 힘들지 않느냐 물어보니, "봉사를 하고부터 건강도 더 좋아지고 마음도 더 부자가 된 거 같다"며 웃으시네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소외된 이웃을 위해 계속 봉사하겠다는 임점순 통장님. 그분이 있어 우리 동네 겨울은 따뜻합니다.

_ 김관택 남구 경인로



인천대교에서 희망을 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지난해 12월 31일 인천대교전망대에서 해넘이를 보았습니다. 지는 해를 보며 힘차게 새구칠 내일의 희망도 보았습니다. 올해도 우리 모두 파이팅해요.

_ 나수정 남구 낙성동로 51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인천을 주제로 한 사진과 글을 받습니다. 인천 풍경에 대한 단상, 인천에서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간단한 자연(원고지 1매 분량)을 보내 주세요.
- 칭찬하거나 알리고 싶은 주변의 이웃을 사진과 함께 소개(원고지 1매)해 주세요

※ 채택된 분께는 문화상품권 3장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 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접수합니다.

보내실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문의 : 440-8305



국제 연극축제가 열리는 그날을 꿈꾸며

글. 김용란_연극배우

각 나라나 도시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가 있다. 인천에서 연극배우로 활동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인천과 같이 큰 국제도시로 변변한 연극축제 하나 없는 것이었다. 물론 지역 연극협회에서 해마다 개최하는 연극제가 있긴 하지만, 전국연극제 출품을 위한 경선이어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기에선 규모나 홍보가 부족한 현실이다.

그나마 ‘부평풍물축제’와 ‘무의도 춤 축제’ 정도가 1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해 온 축제가 아닌가 싶다. 무의도 춤 축제는 초기에는 연극공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축제였다. 하지만 연극공연의 특성상 야외에서 공연을 하면 대사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시각적인 작품 위주로 올리다보니, 이제는 완전히 춤과 뮤지컬형태의 작품을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무의도는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자연 경관을 갖췄으며, 도심에서 가까운 지리적 특성이 있다. 앞으로 다리가 놓이면 더욱 편하게 드나들 수 있어, 시와 구에서 국제적인 문화관광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여러 각도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십여 년 전에 세계적인 연극축제로 유명한 프랑스의 아비뇽, 영국의 에딘버러 축제에 가보니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낮에는 관광하고 저녁에는 공연장을 꽉꽉 채우는 모습을 보고 매우 부러웠다. 아비뇽과 에딘버러 시민 대다수는 한 달 여의 축제기간 동안의 수입으로 1년을 생활할 정도라고 한다.

무의도에도 상설공연장이 많이 세워져 ‘언제 어느 곳을 가더라도 항상 공연이 열렸으면’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낮에는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관광을 하고 저녁에는 공연장을 찾아 예술의 향연에 흠뻑 빠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휴식이며 휴가가 아닐까.

지금의 무의도 춤 축제는 연극인 차광영이 지인들과 함께 노력하여 오늘의 성과를 이루었다. 앞으로 시와 구 그리고 더 많은 예술인들이 합심해 국제적 축제로 발전시키길 바란다. 단 지나치게 상업주의로 흐르거나, 단순한 오락에 호소하거나,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잡동사니 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부디 전통과 순수예술, 기초예술을 보존하며 국제적인 축제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법정스님의 말씀을 좋아해 스님의 저서 〈무소유〉나 〈버리고 떠나기〉를 곁에 두고, 가끔 정신적으로 힘들때 즐겨 읽는다. 여러분도 마음의 여유가 필요할 때 읽어보길 권한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 것이 들어설 수 없다. 그러므로 차지하고 채우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 침체되고 묵은 과거의 늪에 갇히는 것이나 다름 없고, 차지하고 채웠다가도 한 생각 돌이켜 미련 없이 섰듯 버리고 비우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 열리는 통로다.”

— 〈버리고 떠나기〉중에서



저 얼음 떠다가 팔빙수 해 먹을까

동(冬)장군은 뱃길마저 얼렸습니다.

경인아라뱃길 해경순찰보트가 마치 얼음 조각에 포위된 듯합니다.

저 얼음 떠다가 올 여름에 팔빙수 해 먹을 순 없을까요.

이제 며칠만 지나면 바다로부터 봄바람이 불어오고...

그러면 서해 갈매기와 계양산 제비가 물길 위에서 반갑게 조우할 것입니다.

글 · 사진. 유동현_본지편집장